

지 정	통일부 요청 도지정 시범학교 (2/2)
영 역	통일교육
기 간	2017.3.1. ~ 2019.2.28. (2년간)

2018학년도 연구학교 운영 최종보고서

연구과제명 | 미래 통일사회를 준비하는 통합교육모델 연구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교재 개발과 수업 모델 구축
_인성, 세계사, 수학 교육을 중심으로



목 차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II. 이론적 배경	
1. 이론적 기초	4
2. 선행연구 분석 및 시사점	7
III. 실태 분석 및 운영 과제 설정	
1. 실태 분석	10
2. 운영 과제 설정	12
IV. 연구의 방법	
1. 운영 대상 및 기간	13
2. 운영 절차	13
3. 운영 조직	14
V. 연구의 과정 및 결과	
1. 운영 과제 1의 실행	16
2. 운영 과제 2의 실행	32
3. 운영 과제 3의 실행	51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및 시사점	69
2. 제언	73
[참고문헌]	77

표 목 차

<표 1> 다문화교육의 다섯 가지 접근법	5
<표 2> 연구주제별 분석 결과	7
<표 3> 2015년도 연구학교의 운영 목표	8
<표 4> 실태 분석	10
<표 5> 운영 절차	13
<표 6> 운영과제의 교육과정 구성	15
<표 7> 운영과제1의 차시별 수업 내용	19
<표 8> 운영과제1의 교안 및 학생활동지 예시	25
<표 9> 운영과제1의 고등학교 설문조사 결과	28
<표 10> 운영과제1의 중학교 설문조사 결과	29
<표 11> 운영과제2의 워크북 개발 주안점	33
<표 12> 운영과제2의 워크북 활용 교수학습방법	34
<표 13> 운영과제2의 차시별 수업 내용	35
<표 14> 운영과제2의 학생 피드백	37
<표 15> 운영과제2의 학습주제 분석	41
<표 16> 운영과제2의 학습전후 평가 문항	47
<표 17> 운영과제2의 학기말 성적	47
<표 18> 운영과제3의 주제 및 학습내용	51
<표 19> 운영과제3의 차시별 수업 내용	53
<표 20> 운영과제3의 교사 평가	65

그림 목 차

[그림 1] 운영 과제와 내용	12
[그림 2] 운영 조직도	14
[그림 3] 인성교육 과정 설계	18
[그림 4] 세계사교육 설문조사 결과	48
[그림 5] 수학교육 발표수업 학생 예시	60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현 대한민국의 교육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특수성을 지닌 북한이탈청소년

북한이탈청소년은 한국사회에서 한민족이라는 특성과 동시에 다문화사회의 소수계 그룹으로서의 위치를 지니고 있다. 다문화 학생들에게는 그들에게 맞는 특정한 교육이 필요하듯, 북한이탈청소년도 그들이 지닌 의식과 세계관, 경험 등의 특수성이 고려된 교육이 요구된다. 이들은 동일 민족의 개념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을 만큼 남한 사람들과 다른 부분이 많은데, 이는 북한이탈청소년을 현장에서 경험해본 교사나 그들을 지원하는 통일부, 교회, 시민단체 등 각종 기관에서 일해 본 사람들의 수많은 인터뷰나 각종 논문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바이다. 북한이탈청소년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통일을 위한 일방적인 통합교육을 계획한다면 현실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지금의 교육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북한이탈청소년의 중도탈락이나 학업적 어려움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를 고려한 적합한 교수법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북한의 공교육은 1994년 이후 크게 와해되었고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증언에 따르면 학적에 이름만 올리고 출석을 하지 않아도 중·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정상적인 수업을 받은 학생의 경우라 하더라도 북한의 교과서를 분석해볼 때 고등학교 교과서가 한국의 중학교 수준 정도에 미치며, 실제 북한이탈청소년들을 10년 이상 교육시킨 대안학교들의 경험으로 볼 때도 그들의 학업 수준은 무척 낮다. 한국 학생들에 비해 학업 수준이 턱없이 부족한 북한이탈청소년들을 나이가 같다는 이유로 남한청소년들과 같은 학년으로 묶어두고 수업을 한다면, 교사들은 수업을 이끌어갈 방법을 찾기 어려울 것이며 학생들의 불만도 매우 클 수밖에 없다. 무조건적인 통합보다도 앞서 두 그룹 사이의 커다란 수준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은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고 차후의 통일을 준비함에 있어 중요한 작업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하늘꿈학교는 지난 15년의 학생 교육 노하우와 교사들의 실천적 지식을 바탕으로 북한이탈청소년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교육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위한 교육 모델을 연구하고자 한다. 본교가 선정한 과제는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인성교육, 세계사교육, 수학교육,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이다.

2 연구의 목적

가.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청소년들이 모여 있는 본교 교육현장의 특수한 장점을 활용하여 이들에게 적합한 교육 방식을 개발 및 시범 적용하고, 이를 통해 맞춤형 교재와 수업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일반화 작업을 통해 이 결과물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북한이탈청소년의 역량 강화를 도모할 뿐 아니라 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유용한 기초자료가 되도록 한다.

나. 본 연구를 통하여 북한이탈청소년 교육에 대한 대비가 중요함을 교육부, 교육청 등의 국가 교육기관과 각종 학교와 교사들에 알림으로써 통일 전, 후 시대를 살아가는 교육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북한이탈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적합한 교육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다. 위의 목적을 위한 세 가지 운영 과제의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목표 1: 인성교육 모델 개발

북한이탈청소년의 특수성을 반영한 인성교육 수업을 통해, 폐쇄적인 사회에서 굳어진 학생들의 왜곡된 품성이 다듬어지고 마음의 치유가 이뤄짐으로써 민주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목표 2: 세계사교육 모델 개발

세계에 대한 다양한 경험 및 정보로부터 차단되어 살아온 북한이탈청소년의 지적·정서적 수준에 맞춘 실질적인 세계사 교재 개발 및 수업 적용을 통해, 세계사에 대해 흥미를 갖고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며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이해하도록 한다.

■ 목표 3: 수학교육 모델 개발

수학 학습에 큰 어려움을 느끼는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수학적 지식을 양적으로 보완하기 보다는 평생에 걸쳐 활용 가능한 수학적 힘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초 연산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도 접근하기 쉬운 확률과 통계 교육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수학적 사고 능력 및 실용적 수학 능력을 신장하도록 한다.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연구의 범위

연구의 대상은 북한이탈청소년이다. 통일 시대의 교육을 준비하는 일은 남한 청소년과는 다른 북한이탈청소년의 특수성에 대한 인정과 분석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북한이탈청소년의 특성에는 탈북의 과정이 반영되고 함경도 지역에서 온 학생들이 70%를 차지하여 지역적인 분포도에서 편향성을 띠는 등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쇄적인 북한 사회 내의 청소년들을 예측할 수 있는 샘플은 지금으로서는 이들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통일 후 동독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을 급변하게 받아들여야 했던 동독 청소년에 대한 분석과 대안 없이 서독의 교육 제도를 동독 신연방주에 그대로 적용하였다. 통일 후 동독 교육체제의 변화는 포괄적인 학교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되었지만 개혁은 취해지지 않았다. 동독 신연방주가 학계구조 개편에 있어 서독연방에서는쟁과 비판의 주체였던 단점과 불평등을 도입하였다는 것은 역설적인 상황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김번, 2011) 이는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교육계에서 참고해야 할 사안이다. 북한이탈청소년은 남한의 학생과 관이한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남한의 교육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에 부적절한 면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나. 연구의 운영 방법

연구 과제에 대한 운영 방법은 현장교사들이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교재와 수업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전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반 중고등학교의 보통교과 학습과 더불어 이들만을 위해 개발된 대안교과의 운영이 요구된다. 보통교과의 경우도 학습자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한 효율적인 교수법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교는 문화적으로 적합한 교수법(Culturally Relevant Pedagogy)을 바탕으로 북한이탈청소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교육과정을 설계 하되 현 대한민국의 교과서, 교수 방법, 각종 자료 등을 충분히 활용하며 필요한 부분을 발체 및 응용할 것이다. 연구학교의 각 운영과제는 정규교과 과정과의 연계 속에서 인성교육 주1시간, 세계사교육 주2시간, 수학교육 주2시간, 글쓰기교육 주2시간으로 지속적인 수업이 실시되고 있다. 북한이탈청소년을 시범 대상으로 하여 나온 연구 결과자료는 차후 북한청소년을 위한 교육에 새로운 대안으로써 사용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이론적 기초

가. 용어의 정의

- 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1항)
- 북한이탈청소년: 북한에서 출생하여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는 만 6세 이상 24세 이하의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교육지원 대상이 되는 청소년 연령은 초중고등학교 학령과 청소년 기본법이 규정하는 만 24세까지 연령을 포함한다.
넓은 의미로 볼 때는,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북한이탈주민이고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아동, 청소년이 포함된다. 원칙적으로는 위의 법률이 정의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지만 탈북가정의 자녀로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여러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본 연구에서는 ‘북한청소년’이라는 용어를 북한이탈청소년과 미래 통일 후의 북한 지역 청소년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사용되 현재 학교에서의 교육대상자는 ‘북한이탈청소년’ (혹은 교육 대상자로서 ‘탈북학생’이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음)이므로 각 상황에 적절하게 단어를 혼용하여 사용할 것이다.

나. Sleeter와 Grant(2008/2009)의 다문화교육 접근법과 북한이탈청소년 교육

북한이탈청소년은 대한민국 국민이자 같은 민족으로서 다문화교육 대상 학생들과 동일한 대상자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새로운 문화권에서 살다가 현 교육 체제에 편입되었으며 그들만의 언어, 행동, 문화 등 특수한 특성을 지니고 있고 대한민국의 교육을 받는 일반 학생들과는 구분되는 그룹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교육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적 논의는 다문화교육의 접근법의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 다문화교육에 접근하는 방식은 다문화주의에 대한 사회의 신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McLaren, 1997) Sleeter와 Grant(2008/2009)는 다섯 가지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기존 주류 사회의 것을 인정하며 배우도록 하는 보수적 접근법(특수학생 및 타문화학생을 위한 교수 접근, 인간관계 접근)과 주류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와 재구조화를 목표로 하는 비판적 접근법(단일집단연구 접근, 다문화적 교육 접근, 다문화사회정의교육 접근)으로 구분될 수 있다.(구정화 외, 2009) 다섯 가지 접근법의 자세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다문화교육의 다섯 가지 접근법

접근법		주요내용
보수적 접근	특수 학생과 타문화 학생들에 대한 교수	문화적 소수집단의 학생들이 주류사회의 제도 및 문화 내에서 기능하는 데 필요한 학문적 기술, 개념, 가치 등을 습득하도록 할 뿐 아니라 이들의 문화, 인지양식, 학습양식에 적합하도록 기존의 수업 방식을 변화시키기도 함. 이 접근법을 지지하는 교육자들은 결핍지향적 입장과 차이지향적 입장으로 나뉨.
	인간 관계	특정문화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감소시키고, 관용과 일체감을 증진시키며, 교우관계 및 학생 개인의 문화정체성을 발달시키고자 함. 협동학습, 역할놀이 등이 수업에서 활용되며 봉사활동 등과 같이 사회 내 긍정적이고 조화로운 감정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활동들도 포함됨.
비판적 접근	단일집단연구	소수집단 학생들에게 이들이 속한 집단의 문화적 역사적 사실을 가르칠 뿐 아니라, 이들 집단의 사회적 지위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신념을 기르기 위한 강좌들을 제공함. 소수문화의 편입, 동화보다는 주류사회의 변화를 강조함.
	다문화적 교육	교육과정을 포함한 모든 학교 활동에 기회의 균등 및 다원주의의 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정책적, 실제적 접근. 교육과정 및 교과서가 다양한 문화를 반영하도록 재조직하거나 학교 급식을 포함한 모든 학교 활동에 문화적 다양성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학교교육의 총체적인 변혁을 추구함.
	다문화 사회정의 교육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행동기술을 가르치는 교육. 기존 사회의 평등하고 정의로운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며, 학생들을 새로운 사회 건설의 주체로 인식하여 사회참여 기술을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둠.

출처: 최진영 외(2014)

많은 학자들은 학생들에게 사회정의와 사회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하도록 가르치는 ‘다문화 사회정의교육’을 다문화교육의 지향점으로 삼을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Adams et al, 2007; Banks&Banks, 2009; Ladson-Billings, 2006)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은 대상 학생들이 기존 사회에 적응하고 성공하도록 돕기 위해 필요한 교육에 초점을 두는 보수적 접근에 주로 기반하고 있다.(최진영 외, 2014) 이러한 접근은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전체의 91%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정규학교에 들어가 각 학교 구성원 중 소수의 비율로 공부하고 있으며 (교육부 탈북학생 통계 현황, 2015) 한국의 교육에 새롭게 적응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수적 접근을 벗어나 비판적 접근, 그 중에서도 ‘다문화적 교육’ 접근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교육과정을 포함한 모든 학교 활동에 북한이탈청소년의 특성과 문화를 반영할 수 있는 본교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

다. 탈북학생이 있는 정규학교의 91.1%는 탈북학생 5명 미만이 재학하고 있다. 다수가 남한 출신의 학생들로 구성된 곳에 극히 소수의 학생들만이 북한이탈청소년일 경우, 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적 배려를 하는 일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과정 및 모델의 개발은 북한이탈청소년들이 교육의 주 대상으로 모여 있는 학교에서 행해지는 것이 효율적인 전략일 것이다.

다. 교수학습 모형

일반적으로 각종 수업에서 창의·인성을 육성할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에는 탐구학습 모형, 의사결정 모형, 협동학습 모형, 프로젝트학습 모형, 사회참여학습 모형, 역할놀이와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모형들이 존재한다.(모경환, 2013) 수업은 위의 어느 한 가지 수업모형이나 교수학습법에 의해 실행되기보다는 다양한 방법을 적절히 통합하면서 실행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과제로 선정된 북한청소년을 위한 인성교육, 글쓰기교육, 세계사교육에 있어 그들의 특성과 수준에 맞추어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모형으로는 의사결정 모형과 역할놀이와 시뮬레이션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1) 의사결정 모형

의사결정을 위한 수업에는 사회과학이 창조한 지식을 획득하는 사회 탐구, 그리고 자신이 바람직한 가치를 무엇으로 보느냐를 결정하는 가치 탐구의 과정이 필수로 요구된다. 두 과정이 끝나면 가능한 대안을 모두 검토하여 그러한 대안을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예측한다. 각 결과의 장, 단점을 분석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으로 실천하도록 격려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학생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학습하기 위해 ‘문제제기→지식과 가치문제의 확인→사회 탐구에 의한 지식 획득→가치 탐구에 의한 가치 분석→대안 탐색과 결과 예측→선택 및 결론→행동’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핵심이다.(차경수,모경환, 2008)

2) 역할놀이와 시뮬레이션

역할놀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가상의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역할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학습 효과를 거두려는 학습 방법의 하나이다. 인지적인 내용의 학습보다 정서적인 내용, 특히 가치와 태도의 학습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인성교육 등과 같은 수업모델 개발 시 활용하기 적절하다. 역할놀이는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고 강의에서 느끼지 못했던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타인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문제해결력을 길러주며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북한청소년의 교수학습방법으로 적합하다 하겠다. 일반적으로 역할놀이의 수업 단계는 ‘문제제기와 기본 방향 지도→시나리오 쓰기과 검토→역할의 배당→실제의 연기 수행→보고 및 평가’로 이루어진다.

시뮬레이션은 실제 상황을 모의적으로 만들어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해보는 일종의 게임 형태의 수업이다. 사건이나 문제, 상황 등을 실제로 재연하거나 새로 만들어서 실제 상황처럼 진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2 선행연구 분석 및 시사점

가.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연구 동향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수와 통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짐과 함께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국회도서관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면 관련하여 약 400개가 넘는 학위논문, 학술기사, 연속간행물 등이 나온다. 그중에서도 학술지에 등재된 논문은 2014년 기준으로 100여 편이 된다. 북한이탈청소년 연구는 등재(후보) 학술지에 2002년 이후로 발표되기 시작하였고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0년부터 급증하였다.(윤혜순, 2014) 연구 주제별로 분석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연구주제별 분석 결과

	대분류	세부주제	합계
1	청소년 일반정책	정책, 청소년지도자, 교사	7 (5.51%)
2	청소년 심리, 성, 상담	심리, 심리적응, 상담, 치료, 외상, 정신건강	20 (15.75%)
3	청소년 의식, 문화, 사회	의식(통일, 소비), 문화적응, 사회적응, 태도, 사회화, 정체성, 언어, 정보격차, 소비생활 등	42 (33.07%)
4	청소년 가정, 복지	가정교육(부모, 자녀교육), 복지일반, 다문화 복지 등	10 (7.87%)
5	청소년 교육, 활동	청소년교육, 학교교육(학교적응, 학습장애, 학업성취, 중도탈락, 교과목, 대안학교), 활동프로그램 등	31 (32.28%)
6	청소년 문제, 비행	문제행동, 일탈행동 등	4 (3.15%)
7	청소년 노동, 직업	진로 등	2 (1.57%)
8	기타		1 (0.79%)
	합계		127 (100%)

출처: 윤혜순 (2014)

상기 표의 분석에 따르면 교육, 활동 부분에 가장 많은 논문이 있지만 이는 학교 적응, 학습장애, 학업성취, 중도탈락 등 교육 관련 북한이탈청소년의 특성을 분석한 것들이 대부분이며 실제로 그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그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주는 교과목별 성과물은 매우 희박하다. 학술지 게재 여부를 떠나 국회도서관 검색 서비스에서 드러난 400여 편의 다양한 연구물을 모두 분석해보더라도 교육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수업모델 혹은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는 영어과 2개, 역사과 2개, 과학과 2개, 사회과 1개, 국어과 1개, 수학과 1개, 한국어 어휘 교육방안 1개 등에 불과하다. 이 분야에 대한 현장에서의 연구와 적용 등의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통일 전, 후로 늘어날 수 있는 북한이탈청소년과 추후 북한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가이드가 될 것이다.

나. 탈북학생 교육 정책연구학교 운영 실태

탈북학생 교육 정책연구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정을 통해 2008년 총 6개 학교로 시작되었고 2009년에는 입국초기 위탁교육기관인 경기 삼죽초등학교와 전환기 교육기관 한겨레중학교까지 확대되었으며 이후 전국으로 확대되어 11개 시도에서 정책연구학교를 운영해왔다.(정소민, 윤현희, 2016) 2015년도 연구학교의 주제, 즉 운영 목표는 표 3과 같다. 탈북학생들의 한국 교육 체계 안에서의 적응, 진로, 학습 향상을 위한 것들이 주를 이룬다.

[표 3] 2015년도 연구학교의 운영 목표

연번	학교명	연구학교 주제(세부적인 내용)
1	A초등학교	탈북학생들의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가치관과 소속감 향유
2	B초등학교	탈북학생의 심리안정 및 학력 향상,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탈북학생에 대한 차별과 편견 없는 공동체 문화 조성
3	C초등학교	탈북학생들의 진로인식능력 신장
4	D초등학교	탈북학생 이해 및 학교적응력 향상, 진로개발역량 신장
5	E초등학교	탈북학생의 학교생활 질 향상,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중점 맞춤형 프로그램 구안, 중도입학학생을 위한 초기 적응 프로그램 구안
6	F초등학교	통합적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기반 구축, 탈북학생의 사회성 함양과 학력 향상
7	G초등학교	학교생활적응력 향상
8	H초등학교	탈북학생의 자기주도학습 능력 향상과 자아존중감 향상
9	I중학교	탈북학생교육을 위한 가정과 학교 연계기반 조성, 맞춤형 교육, 진로
10	J중학교	탈북학생 이해를 위한 여건 조성, 탈북학생의 학업 수행 능력 및 자신감 향상, 사회 적응력 추진

출처: 정소민, 윤현희(2016)

이 외에도 2014년에 실시된 한겨레중학교에서의 연구학교는 학습부진아 없애기 프로젝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심리·정서 지원캠프, 진로 직업체험 등 여러 탈북청소년 대안학교들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네 가지 과제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였다.

다. 시사점

1) 남한학생 대상 통일교육 → 탈북학생 대상 연구의 필요성
 미래 통일사회를 준비하는 통합교육모델 연구라는 연구과제 하에서 대부분의 연구학교들은 남한출신 학생들을 대상으로 북한, 북한이탈주민, 또는 통일 이슈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배우는 활동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통일사회를 이룰 구성원의 반은 북한 주민이므로 북한청소년을 대변하는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동일하게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2008년부터 시작된 탈북학생 대상 정책연구학교의 운영은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여겨진다.

2) 정규학교 내 탈북학생 연구 → 탈북학생만 있는 학교 내 연구
 비교적 많은 탈북학생들이 모여 있는 정규학교를 위주로 하던 연구를 탈북학생들만 모여 있는 한겨레중학교로 확대하고 2017년 현재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하늘꿈학교로까지 넓힌 것은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 적용 가능한 교육과정이나 교내, 수업모델 등을 구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정규학교 내 한 교실에서 다수의 남한학생과 소수의 탈북학생이 공부하는 것은 통일 전, 북한이탈청소년 교육 방안으로서의 대안 모색에는 적절한 연구 배경일 수 있다. 하지만 통일 후 남한 지역으로 넘어오지 않고 고향인 북한에 그대로 거주하게 될 많은 수의 북한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방법 연구로는 적합하지 않다. 북한 지역 청소년들이 교육 대상자가 되고 한국의 교육 방식이 적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교육 모델의 구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에서의 경험과 시행착오, 연구 과정과 결과물은 중요하게 사용될 것이다.

3) 적응, 진로를 위한 활동 위주 연구 → 구체적인 교과목의 교재 및 수업모델 연구
 지금까지 탈북학생 대상 연구학교 과제에서 북한이탈청소년들의 한국 사회 적응, 진로 개발, 자존감 향상 등을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던 것은 분명히 유의미하다. 하지만 이는 주로 창의적 체험 활동에 해당되는 교과 외 활동이기 때문에 학교 커리큘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교과목 수업 시간 때 학력수준이 현저히 낮은 북한 청소년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면에서 본 연구가 시도하는 글쓰기교육, 세계사교육, 그리고 인지적 접근에 무게를 둔 인성교육은 그동안 시도하지 않는 새로운 영역의 연구 과정이 될 것이다.

Ⅲ. 실태 분석 및 운영 과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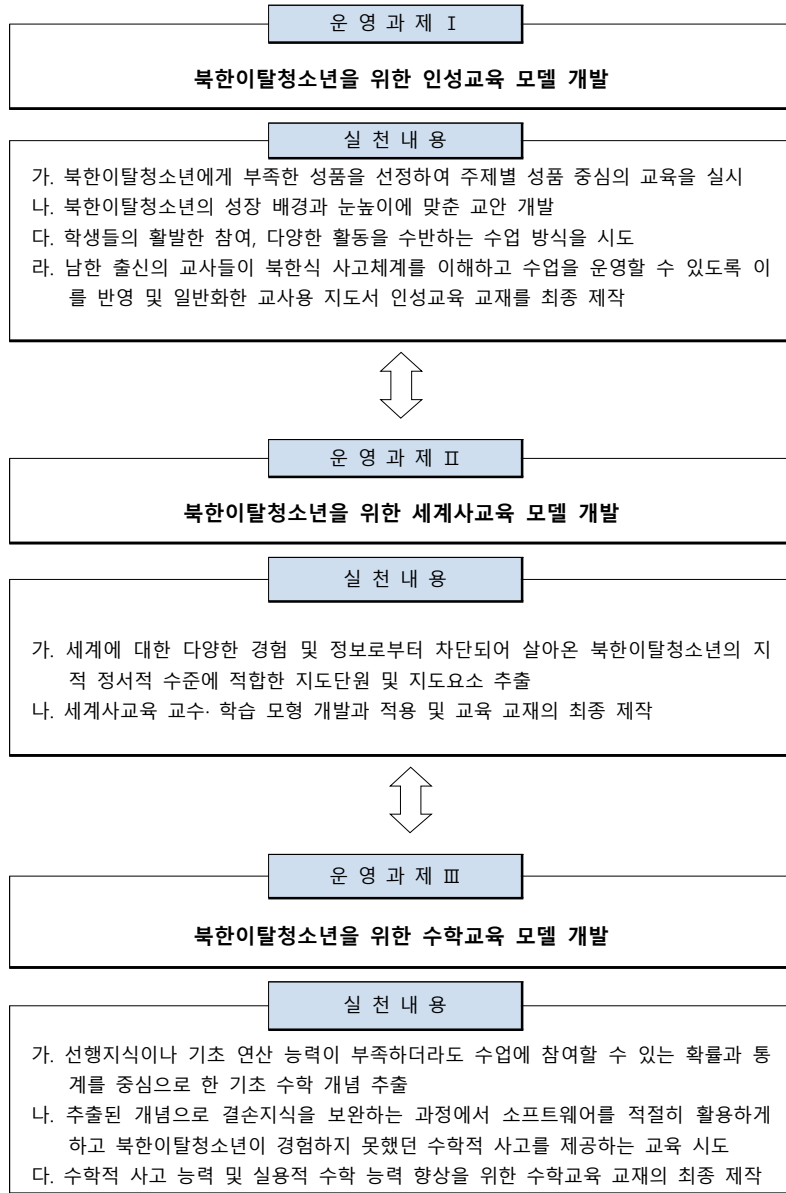
1 실태 분석

[표 4] 실태 분석

북한이탈청소년 교육과정에 필요한 요소	
목표	북한이탈청소년의 전인적 역량 강화
실태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탈청소년의 현 상태와 수준에 대한 분석 없이 그저 남, 북 통합의 노력을 목적으로 남북한 청소년들이 한 교실에서 공부하게 될 경우 두 부류의 나이 및 학력 격차가 매우 심하여 수업을 이끌어가는 것이 어려우며 수업의 비효율은 양측 학생들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 - 북한이탈청소년(통일 이후의 북한청소년)은 대한민국 청소년과는 다른 특수성을 보유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이: 북한 내부 교육의 붕괴로 인해 중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지 못한 청소년의 연령이 14세부터 25세에 이른다. • 세계관: 사회주의 사상과 물질만능주의 사고가 공존한다. • 학습: 기초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공교육의 붕괴로 인해 실제 졸업장을 갖고 있을지라도 수업 출석이나 과정 이수하는 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즉, 북한에서의 학력이 실질적인 학업 수준을 설명하지 못한다. • 가정환경: 가정의 해체 및 학부모의 한국 사회 이해 부족으로 인해 학부모로부터 양육과 지도를 받기 어렵다. • 심리정서: 정서적 불안정과 자아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 • 신체: 다양한 질병과 허약한 체력을 보유하고 있다.
과제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탈청소년의 다양한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전인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 학습: 학력과 학령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고, 주어진 기간 내에 대한민국의 중고등학교 과정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최적화된 수업을 제공한다. • 가정환경: 가정교육의 부재를 학교 내 프로그램에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좋은 성품을 지닌 학생으로 자라

	<p>도록 교육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정서: 학생과의 주기적인 접촉,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 나아가 민주사회 시민으로서의 건강한 자아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 신체: 건강검진, 체력단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허약한 신체의 학생들을 관리한다.
<p>해결방안 (하늘꿈학교 맞춤형교육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늘꿈학교는 북한이탈청소년의 특성 분석 및 과제 도출을 통해 이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여섯 가지 교육목표를 설정하여 다각적인 수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학습 → 지성 키우기 (학생들의 수준에 맞춘 수업, 영어 교과 강화, 독서 집중 교육, 작문 집중 교육, 실습 위주의 컴퓨터 수업 등) • 가정환경 → 인성 기르기 (가정공동체 구성을 통해 교사와 학생이 함께 거주, 체육반, 댄스반, 연극반 등의 다양한 동아리 활동 등) • 심리정서 → 마음 다지기 (전문상담, 신입생/재학생을 위한 체계적 양육 시스템, 자아발견 프로그램 등) • 신체 → 건강 다지기 (학기별 전교생 건강검진 및 추적 관리, 치과 진료, 금연 및 금주 교육, 체력장 테스트, 건강 및 안전 교육 등) • 진로진학 → 진로 찾기 (진로 수업, 고3 대학진학 프로그램, 취업반 학생을 위한 개별 지도 등) • 사회적응 → 남북통합 이루기 (지역 학교와의 학생회 교류, 방문 교류, 남북한 청소년 영어통일캠프 등)
<p>연구학교 운영과제 선정</p>	<p>북한이탈청소년의 전인적 역량 강화를 목표로 그들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모델을 연구한다. (교재 개발과 수업 모델 구축)</p> <p>과제 1. 인성교육 개발 과제 2. 세계사교육 개발 과제 3. 수학교육 개발</p>

2 운영 과제 설정



[그림 1] 운영 과제와 내용

IV. 연구의 방법

1 운영 대상 및 기간

- 가. 대상: 하늘꿈학교 재학생
 - 인성교육: 전교생(2017), 중학교 1~3학년(2018)
 - 세계사교육: 고등학교 2, 3학년
 - 수학교육: 고등학교 3학년
- ※ 중간연차 1년 운영 후 기존 운영과제 중 글쓰기교육을 마쳤으며, 2년차에는 새로운 운영과제인 수학교육을 추가함.
- 나. 기간: 2017년 3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2 운영 절차

[표 5] 운영 절차

연도	단계	추진 내용	월별 추진 기간												
			3	4	5	6	7	8	9	10	11	12	1	2	
2017, 2018 학년도	계획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학교 추진계획 수립													
		연구과제 결정 및 준비													
		위원회조직 및 연구 계획서 작성													
	실행	운영과제1의 실행													
		운영과제2의 실행													
		운영과제3의 실행													
		홈페이지에 자료 탑재 관리													
		활동 실적물 자료 정리													
	평가	연구결과 검증 및 분석													



1 운영과제 ①의 실행: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인성교육 모델 개발

가.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인성교육에서 다룰 주제의 선정

학교와 가정의 결합된 형태의 전인적 교육을 실시하는 하늘꿈학교는 지난 15년간 남한출신의 교사와 북한이탈청소년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며 학교 외에도 가정 안에서 드러나는 학생들의 크고 작은 성품적 결여의 면모를 관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청소년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성품의 항목들을 아래의 10가지로 선정하였다.

북한이탈청소년에게 필요한 인성교육의 주제 성품

긍정적인 태도 갖기, 신뢰 쌓기, 관용하기, 인내하기, 절제하기
감사하기, 배려하기, 예절 지키기, 칭찬하기, 정직하기

나. 수업 운영 형태

1) 인성교육을 특성화교과로서 전교생이 매 학기마다 1시수를 이수하도록 편성한다. 한 학기는 17주이며, 이 중에서 정기교사와 공휴일, 특별 외부 활동을 제외하면 12주~15주의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15차시의 수업으로 구성하되 학기별 다섯 가지 주제를 실시하도록 한다. 1학기에는 <긍정적인 태도 갖기, 신뢰 쌓기, 관용하기, 인내하기, 절제하기> 그리고 2학기에는 <감사하기, 배려하기, 예절 배우기, 칭찬하기, 정직하기>라는 주제로 수업을 운영한다.

2) 본 교육 과정은 이론수업, 활동수업(A,B)으로 나누어 구성된다. 중학교 1학년 때 이론 수업을 이수하고 2, 3학년 때는 이론 수업을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활동수업을 실시한다. 이론수업은 개발된 교안을 바탕으로 담임교사가 실시하며 활동수업은 독서와 나눔, 텃밭활동 등 다양한 것들을 시도할 수 있다.

- 이론수업 운영: 한 주제 당 3차시로 구성한다. 담임교사가 해당 주제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서 학생들의 관심을 환기시키며 시작한다. 파워포인트를 사용해 그림, 질문 등을 보여주며 문체 체계를 하고 이에 관한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후 교사는 해당 주제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전달하고 선한 가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준다. 이때, 생활주변의 경험을 활용해 학생들이 해당 주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인지적, 정의적 접근) 수업의 마지막에는 미션 부여함으로써 학생들이 오늘 배우고 느낀 사항을 행동으로 옮기고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습관으로 굳혀질 수 있도록 한다. 이론수업 내에도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좋은

성품으로 그제 함한 행동을 선택하고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행동적 접근) 수업의 시작 때는 학생들에게 부여한 미션에 대해 잘 수행한 학생을 시상하여 본 프로그램에 더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 독서와 나눔(활동 수업A): 인성교육 이론수업을 1년간 이수한 중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제 성품 중 일부를 택하여 관련 도서 읽기와 나눔을 한다.

- 텃밭 가꾸기(활동 수업B): 인성교육 이론수업을 1년간 이수한 중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텃밭 가꾸기 활동을 실시한다.

다. 인성교육 담당 강사

인성교육의 담당 강사를 누구로 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본교가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기 시작한 2014년에는 중1반, 고3반 담임교사가 해당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범적 운영을 실시하였다. 2015년 1학기에는 인성교육 담당 교사를 한 명을 선정하여 전교생을 대상으로 각 반별 교육을 시도하였고, 2학기에는 교내의 여러 교사들이 인성교육 주제를 각자 한 두 개씩 맡아 팀티칭의 형식으로 반별 수업을 하는 형식을 도입하였다. 다양한 형태의 인성교육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담임교사의 인성교육이 가장 적합하다는 잠정적 결론을 내리고 있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이 담임교사에 대한 친밀감이 크고 담임교사는 각 반 학생들에 대한 정보와 특성을 잘 알고 있기에 학생 상황과 수준에 맞는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분석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한 명의 담임교사가 입학 시부터 졸업 때까지 동일한 학급을 담당하게 되므로 담임교사와 학생간의 결속력이 강한 편이다. 통일 이후에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함에 있어서도 담임교사가 담당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되리라고 예상된다. 또한 북한의 경우가 아니라도 한국에서 행해진 많은 연구 결과, 아이들은 애착을 느끼고 존경하는 사람에게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므로 친밀한 대상이 부모와 교사가 될 때에 아이에게 가장 영향력 있게 성품을 가르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이영숙, 2005)

라. 세부 추진 내용

■ 인성교육 수업 시행 및 교재 개발

1) 영상: 각종 매체에 소개된 영상들 중 주제에 맞고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을 5분 정도의 길이로 편집하여 사용한다. (작년 수업 때 교사들이 제작한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나, 담임교사들도 각자 추천할만한 영상을 준비해주면 추후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권함)

2) 교안: 한 학기에 걸쳐 만들고, 매 수업에 바로 적용한다.

- 각종 서적, 기사, 글 등을 활용한다.

- 북한이탈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북한에서의 상황 설정을 사용하며 이들의

성품적 특성을 분석 및 반영한다.

- ‘좋은나무 성품학교’의 전문 강좌 과정을 밟아 현재 국내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인성교육 중 북한이탈청소년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한다.(담당자는 2016년 9월, 3주간 토요일마다 열리는 성품전문지도사 과정 수업에 참여하여 체계적인 이론, 교수-학습법, 교구 등에 대해 배움으로써 교안 개발을 위한 역량을 쌓았음)

3) 담당 강사 지침

- 수업 전날, 배부된 교안과 영상을 미리 숙지하고 주제에 대한 개인적 이해와 해석을 더하여 수업에 임하도록 한다. 주제별 교안과 영상은 교사들에게 매주 수업 사흘 전까지 배부한다.

- 각 반 학생들의 특성에 맞추어 교안을 수정 및 활용하며 담당 강사의 재량에 따라 새로운 활동을 시도해도 좋다. 본 교안은 ‘북한이탈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중국에서 자란 제3국 출생 학생들에게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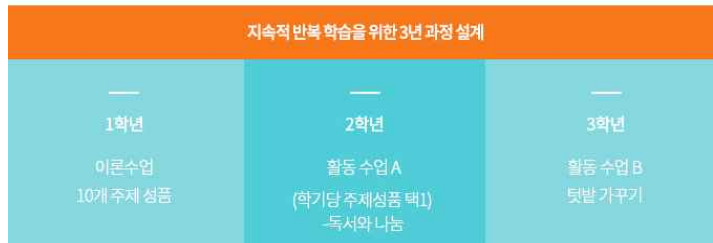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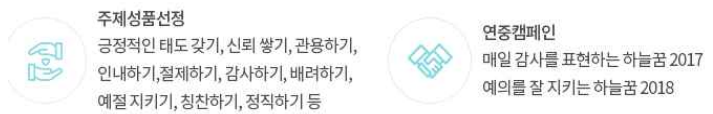
-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영상과 PPT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비를 준비한다. 또한 준비된 물품, 간식 등을 학생 수대로 수령하여 수업에 들어간다.

- 수업 후 보고서 (교안 외 추가하고 싶은 내용도 넣기)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4) 교재 개발 사항

- 개발된 교안을 실제 수업에서 적용한 후, 교사들의 피드백 및 학생들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정을 거쳐 최종 교재를 제작한다. 학생들은 교사가 준비한 파워포인트 화면을 통해 수업에 참여하게 되므로 학생용 교재보다는 어떻게 수업을 이끌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정리한 교사용 지도서로 개발한다.

■ 차시별 수업의 구성



[그림 3] 인성교육 과정 설계

[표 7] 운영과제1의 차시별 수업 내용 (2018학년도 운영 기준으로 작성)

이론수업		1학기 수업 구성	
기간	2018년 3월 ~ 7월	참석대상 및 인원	중1학년
장소	하늘꿈학교 교실	추진횟수 및 시간	총 15회, 회당 50분
차시	주제	내용	
1차시 ~ 3차시	긍정적인 태도 갖기 (무기력을 물리치고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한다. 학생들을 마음껏 축복해주는 시간으로 활용한다.)	오늘의 주제 성품 관련 영상 시청 ⇨ 수업 자료를 이용한 학생들과의 자유 토론 및 교사의 정리 ⇨ 반복적인 행동을 통한 습관 만들기 미션 부여 - 미션왕 선발: 지난 한 주간의 미션을 가장 성실히 수행한 쓴 학생에 대해 학생들과의 간단한 투표를 통해 사탕 등 작은 선물을 주며 격려 - 지난 수업에 이어 자료를 이용한 학생들과의 자유 토론 및 교사의 정리	
4차시 ~ 6차시	신뢰쌓기 (시간 지키기, 약속 지키기,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기 등을 훈련하며 권리 주장에 익숙한 북한이탈청소년들이 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배우도록 한다.)	오늘의 주제 성품 관련 영상 시청 ⇨ 수업 자료를 이용한 학생들과의 자유 토론 및 교사의 정리 ⇨ 반복적인 행동을 통한 습관 만들기 미션 부여 - 미션왕 선발: 지난 한 주간의 미션을 가장 성실히 수행한 쓴 학생에 대해 학생들과의 간단한 투표를 통해 사탕 등 작은 선물을 주며 격려 - 지난 수업에 이어 자료를 이용한 학생들과의 자유 토론 및 교사의 정리	
7차시 ~ 9차시	관용하기 (북한주민들의 기본적인 사고 체계인 흑백사고를 극복하고 중용의 사고를 기르도록 한다. 타인의 생각에도 귀 기울이는 연습을 한다.)	오늘의 주제 성품 관련 영상 시청 ⇨ 수업 자료를 이용한 학생들과의 자유 토론 및 교사의 정리 ⇨ 반복적인 행동을 통한 습관 만들기 미션 부여 - 미션왕 선발: 지난 한 주간의 미션을 가장 성실히 수행한 쓴 학생에 대해 학생들과의 간단한 투표를 통해 사탕 등 작은 선물을 주며 격려 - 지난 수업에 이어 자료를 이용한 학생들과의 자유 토론 및 교사의 정리	
10차시 ~ 12차시	인내하기 (인내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알고 삶의 소중한 가치로 품고 살아가도록 한다.)	오늘의 주제 성품 관련 영상 시청 ⇨ 수업 자료를 이용한 학생들과의 자유 토론 및 교사의 정리 ⇨ 반복적인 행동을 통한 습관 만들기 미션 부여 - 미션왕 선발: 지난 한 주간의 미션을 가장 성실히 수행한 쓴 학생에 대해 학생들과의 간단한 투표를 통해 사탕 등 작은 선물을 주며 격려 - 지난 수업에 이어 자료를 이용한 학생들과의 자유 토론 및 교사의 정리	
13차시 ~	절제하기	오늘의 주제 성품 관련 영상 시청 ⇨ 수업 자료를 이용한 학생들과의 자유 토론 및 교사의 정리 ⇨ 반복적인	

15차시	(북한이탈청소년들, 특히 남학생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분노 조절, 폭력의 문제, 낭비 혹은 재정에 관한 집착, 게임, 담배, 술 등의 절제를 권유한다.)	행동을 통한 습관 만들기 미션 부여 - 미션왕 선발: 지난 한 주간의 미션을 가장 성실히 수행한 학생에 대해 학생들과의 간단한 투표를 통해 사랑 등 작은 선물을 주며 격려 - 지난 수업에 이어 자료를 이용한 학생들과의 자유 토론 및 교사의 정리
------	--------------------------------------------------------------------------------------	------------------------------------------------------------------------------------------------------------------------------------------------

이론수업		2학기 수업 구성	
기간	2018년 9월 ~ 12월	참석대상 및 인원	중1학년
장소	하늘꿈학교 교실	추진횟수 및 시간	총 15회, 회당 50분
차시	주제	내용	
1차시 ~ 3차시	감사하기 (자신과 상대에 대한 감사보다는 불평을 바탕으로 생활충화를 습관화해온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생각을 감사로 전환하도록 한다.)	감사 관련 영상 시청 ⇨ 수업 자료를 이용한 학생들과의 자유 토론 ⇨ 교사의 정리 ⇨ 반복적인 행동을 통한 습관 만들기 미션 부여 (예시: 감사노트 쓰기_ 감사노트는 학기 말까지 매주 쓰도록 하여, 마지막 회기 때 다시 한번 시상한다.) - 미션왕(감사왕) 선발: 지난 한 주간 가장 감사노트를 잘 쓴 학생에 대해 담임교사가 각 반 감사왕을 선발하여 시상한다. - 감사편지 써서 발송하기: 내 생애 가장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사람에게 편지 쓰기를 한 후, 발송한다.	
4차시 ~ 6차시	배려하기 (생존을 위한 삶을 유지하느라 타인에 대한 배려의 기회가 적었지만 정이 많은 장점을 살려 배려의 소중함과 방법을 배운다.)	배려 관련 영상 시청 ⇨ 수업 자료를 이용한 학생들과의 자유 토론 ⇨ 교사의 정리 ⇨ 반복적인 행동을 통한 습관 만들기 미션 부여 - 지역사회 청소하기	
7차시 ~ 9차시	예의 지키기 (한국사회, 서양사회 등의 새로운 문화권에 대한 예절을 배우고 익힌다.)	예절 관련 영상 시청 ⇨ 수업 자료를 이용한 학생들과의 자유 토론 ⇨ 교사의 정리 ⇨ 반복적인 행동을 통한 습관 만들기 미션 부여 (예시: 인사 열심히 하기) - 미션왕(인사왕) 선발: 지난 한 주간 가장 인사를 잘한 학생에 대해 교사 투표를 통해 각 반 인사왕을 선발하여 시상한다. - 예절 상황극: 식사, 공동생활, 수업 등을 할 때 알아야 할 기본 예절에 대해 상황극을 통해 배워본다. - 개인별로 꼭 지키고 싶은 예의를 다짐하는 카드를 만들어 본다.	

10차시 ~ 12차시	칭찬하기 (말의 힘과 중요성을 깨닫고 자신과 타인에 대해 칭찬하는 훈련을 한다.)	<강사: 소정섭 교사> 칭찬 관련 영상 시청 ⇨ 수업 자료를 이용한 학생들과의 자유 토론 ⇨ 교사의 정리 ⇨ 반복적인 행동을 통한 습관 만들기 미션 부여 - 사랑의 언어 테스트 실시: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언어, 상대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언어가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언어를 표현해보는 연습을 한다.
13차시 ~ 15차시	정직하기 (생존의 문제로 거짓말을 해야했던 북한에서의 상황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한 작은 다짐을 시작해보도록 한다.)	정직 관련 영상 시청 ⇨ 수업 자료를 이용한 학생들과의 자유 토론 ⇨ 교사의 정리 ⇨ 반복적인 행동을 통한 습관 만들기 미션 부여 - 그림으로 표현하기: 정직하게 말, 행동하지 못했던 순간에 대해 그림으로 표현하며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그림에 대해 발표하며 서로의 마음을 나눈다.

활동수업 A, B		1년 수업 과정 * 2년으로 구성	
기간	2018년 3월 ~ 12월	참석대상 및 인원	중2학년/ 중3학년
장소	하늘꿈학교 교실/ 옥상 텃밭	추진횟수 및 시간	총 15회, 회기당 50분
활동수업 A	『독서와 나눔』을 통한 인성교육	'감사하기' 주제 등에 관한 활동으로서 <감사는 숲을 담은 씨앗입니다>, <1318성품스쿨> 도서를 반 학생들이 함께 읽고 자신의 삶에 적용해보며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 도서의 해당 내용 다같이 읽기→ 활동지 작성→ 발표와 나눔 ■ 관련 영상 시청, 그림 그리기, 시 쓰기, 만들기 활동	
활동수업 B	『텃밭가꾸기』를 통한 인성교육	'배려하기' 주제 등에 관한 활동으로서 1년간 반 학생들이 서로 도우며 감자, 고추, 가지 등을 심고 가꾸는 가운데 배려심과 협동심을 기르도록 한다.	

마. 수업 운영 결과 및 분석

: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인성교육은 연구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담당 교사들의 현장 경험을 통한 다양한 의견 개시와 조율 작업이 활발하게 요구된다. 일반적인 프로그램처럼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되, 우선적으로 교사들의 의견과 현장에 대한 판단을 중심으로 질적연구 방식을 활용하였다. 매 수업 후 담임교사들이 교안 적용 및 수업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현장 반응과 교사로서의 피드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인성교육 연중 캠페인 운영 결과

- 1) 2017년도 주제: “매일 감사를 표현하는 하늘꿈”
- 2) 운영 방식: 매일 감사노트를 작성하여 매주 인성교육 시간의 도입 때 반별로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담임교사도 동참하여 노트 작성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성실하게 임한 학생은 매 달 시상함으로써 참여를 독려한다.
- 3) 운영 결과

- 긍정적인 측면

○ 감사노트 내용을 발표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질 때, 학생들이 감사노트에 풍성한 감사의 제목을 적지는 못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 전보다 발전된 감사의 제목을 적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 학생은 북한에서 형과 삼촌이 한국으로 와서 매우 감사했다는 나눔을 했고 이 나눔에 대해 학급의 모든 학생들이 함께 기뻐했다. 학생들이 성실하게 쓰는 것은 어려워지만 정말로 감사해야 할 것들을 입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 이전까지는 감사노트를 잘 쓰지 않거나 매일 같은 이야기를 적던 학생들이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먼저 발표를 하고 싶다고 의견을 표하기도 하였다. 정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자주 힘들어하는 학생이 앞에 나와서 감사노트를 기쁘게 발표하는 모습이 매우 새롭다. 학생들이 조금씩 적극적으로 자신의 감사 제목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 어려웠던 부분

○ 학생들이 시험이 다가오고 학교 일정이 바빠지면서 감사노트를 매우 간헐적으로만 작성했다. 또한 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다보니 감사한 것보다는 힘들고 지치는 것이 더 많아져 감사의 이유를 찾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도 한다. 학생들에게 예시를 제공하기 위하여 담임교사가 근래에 감사했던 사소한 것들을 나누며 격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감사노트를 쓰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인성 시간 직전에 급하게 숙제하듯이 감사노트를 쓰는 학생들도 있었으며, 감사가 의무적으로 느껴지면 좋은 습관이 길러지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반은 담임교사의 재량에 따라 주 1회가 아닌 매일 조퇴시간에 감사노트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감사노트를 작성한 학생에게는 감사노트 왕 상품을 증정하여 참여를 독려했다.

○ 감사노트를 통하여 담임교사와 더 많이 소통하면서 회복을 얻는 학생들이 있는가하면, 감사노트 작성을 짐으로 여겨서 지속적으로 반감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학생들도 있다.

■ 이론수업 운영 결과

성품 1) 긍정적인 태도 갖기

자신의 장점을 적어보거나 주변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는 활동을 한 것은 학생들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에 있어, 그저 정답을 형식적으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본인 내면과의 부딪힘의 과정조차도 솔직하게 내어놓고 표출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사고와 마음의 변화를 조금이나마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주제를 이해시키기 위해 활용한 인물인 닉 부이치치는 생각보다 많은 북한청소년들이 이미 접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번에는 학생들이 잘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인물을 모색하는 일도 필요하겠다.

성품 2) 신뢰 쌓기

신뢰 쌓기는 학생들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킴으로써 변화를 도출해내는 성품 주제라기보다는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며 각 개인의 삶에서 그것을 어떻게 실천으로 연결시킬지는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결심하는 수업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이 있었으리라 여겨진다. 하지만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신뢰 쌓기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교실 안에서의 인성교육을 밖에서의 실천 연습으로 옮겨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프로젝트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후 연구해도 좋을 것이다.

성품 3) 관용하기

관용이란 주제는 학생들의 삶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영역임을 수업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관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PPT 자료와 같이 ‘다르다’는 것을 ‘틀리다’라고 인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고집이 세고, 자기주장이 강한 학생들이 관용적 태도가 부족함을 볼 수 있었다. 자신이 맞는데 상대가 틀렸다고 이야기하면 화가 나며, 자신이 화가 나면 다른 사람의 의견은 하나도 들리지 않는다는 등의 솔직한 마음을 나누었다. 학생들이 관용적 태도를 소유하여 존중받는 사람이 되도록 독려하는 시간으로 수업을 활용했으며, 특별히 이 주제는 북한이탈청소년들에게 매우 필요한 교육임을 확인하였다.

성품 4) 인내하기

인내하기 수업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진행 중인 인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를 표현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였다. 학생들이 본인 외에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인내하고 있는 과정을 공유할 수 있었음에 감사한 수업이 되었다. 인내를 해야 하는 이유와 인내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 학생들과 나눌 수 있었다.

성품 5) 절제하기

주제 관련 영상을 통해 관심을 환기시킨 후 구체적으로 절제가 필요한 부분을 떠올려보게 할 때 학생들은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 등에 대해 스스로 이야기했다. 자신이 원하는 주제를 선택해 스마트폰, 돈, 음식 및 기호식품 팀으로 나누어 마인드맵을 만들고 발표를 하는 활동에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절제해야 하는 이유와 그 유익을 스스로 이야기 해보도록

함으로써 정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스스로 올바른 마음가짐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절제에 대한 학생들의 진정한 다짐으로 이어지는 방법이었다고 평가된다.

성품 6) 감사하기

학생들의 내면과 삶에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감사에 대해 마음을 열지 못하는 모습을 보기도 한다. 하지만 영상을 보고, 이지선씨라는 감사의 인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활동지를 작성하며 수업을 이어갈 때 학생들은 조금씩 생각과 마음을 열곤 했다. 본 주제 수업 이후에는 학생들이 감사노트 쓰기 활동에 더 진지하게 임할 수 있었다.

성품 7) 배려하기

배려의 정의를 이영숙 박사의 것을 차용하여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관찰하는 것’을 포함시켰다. 의례적인 양보나 회생자가 아닌 타인에 대한 관심과 관찰을 바탕으로 하는 배려를 가르치고자 했으며 이에 대해 학생들은 다소 어려워했으나 많은 생각할 거리를 제공해주었다는 점이 긍정적이었다.

성품 8) 예의 지키기

다른 주제 수업들이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를 통해 행동이 변하도록 유도하는 반면, 예의 지키기 수업은 북한 문화의 학생들에게 한국 혹은 서양의 문화를 소개 및 전달해주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것에 흥미로워 했으며 잘 모르고 눈치로 행동했던 것들을 글과 내용으로 배울 수 있어 좋다고 표현하였다. 다섯 가지 영역의 예절 외에도 요즘 시대에 중요성을 더해가는 사이버 예절 등을 추가해도 좋을 것이다.

성품 9) 칭찬하기

각 교실에서 담임교사의 지도로 이뤄지는 일반적인 인성 수업에서 벗어나 전교생이 한 자리에 모여 강의를 들으며 그 장소에서 원을 만들어 반별 활동을 하도록 기획하였다. 반복되는 수업의 형태에 변화를 줌으로써 지루함을 덜고 새로운 느낌을 주고자 하였으며 학생들은 즐겁게 참여하였다. 칭찬왕을 선발하여 전교생 앞에서 상장을 수여하며 단지 성적이 아닌 말을 소중하게 사용하고 다른 이를 칭찬하는 행동도 상을 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이고 남을 평가하거나 비난하는 언어에 익숙한 우리 학생들에게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고 서로가 이것을 실습하는 가운데 격려 받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칭찬 외에도 함께하는 시간, 봉사, 선물, 스킨십 등 여러 언어를 통해 사랑을 전할 수 있으며,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는 점을 인지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성품 10) 정직하기

학생들은 북한에서 생존의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것 중 하나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고 말한다. 정직하기만 해서는 목숨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불안정한 사회에서 살아온 그들에게 정직의 가치를 논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주제 성품은 1년간의 인성교육이 마무리 되는 마지막 차시에 배정하였다. 학생들은 손해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려워했고 더 나아가 반항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당위성 전달만으로는 그들의 마음을 열기가 힘들다.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직해야 하는지, 정직한 삶을 살 때 어떤

이익이 있는지 등에 대해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잘 구성해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주제는 담당교사들이 수업을 운영하기 가장 어려워하였으며 교안 개발에 추가적인 연구가 더욱 요구된다.

[표 8] 운영과제1의 교안 및 학생활동지 예시

교안 일부 예시			
긍정적인 태도 갖기			
관용하기			
인내하기			

- 많은 지식을 배웠다.
- 인성을 배우면서 분노와 격분함을 많이 절제하게 되었다.
- 고민을 풀 수 있으니 좋다.
- 생활하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도 배우고 마음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 자기를 다시 되돌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인성시간에 여러 가지 배우고 알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습니다.
- 인성 수업으로 다툼, 질투 모두 버리고 친구들과 사랑도 나누고 서로 도와주고 좋은 수업입니다.
- 다 좋음. 딱딱하지 않아 좋음.
- 좀 더 재밌는 것 했으면 좋겠습니다.
- 흐트러졌던 마음을 다시 다잡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인성수업을 매주가 아닌, 한 달에 1회만 했으면 합니다.

■ 학생 설문지 결과

: 사후 설문조사 결과, 고등학생들은 인성수업에 있어 교사의 지도, 자신의 변화, 만족도의 측면에서 과반수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특별히 다음 학기에도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만족하겠느냐는 질문에 77.2%가 그렇다고 답하며 수업에 대한 높은 만족을 보였다. 이에 비해 중학생들은 여러 항목에서 ‘보통이다’ 라는 답변이 많았고, 긍정적인 답변이 부정적인 것에 비해 더 큰 비율이기는 하지만 고등학생들만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 설문조사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이론수업’을 실시했던 2017년도에 실시한 것으로, 주어진 개념에 대해 사고하고 성찰하는 방식의 수업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들에게 적절했다고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도에는 이론수업을 넘어 독서와 나눔, 텃밭가꾸기 등의 ‘활동수업’을 추가 구성하여 중학생들에게 실시하였으며 현재 수업이 진행 중이므로 이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는 추후에 나올 예정이다.

[표 9] 운영과제1의 고등학교 설문조사 결과 (무응답 2명/총 35명 응답, 2017년 12월)

내용	질문	응답(%)	
		선생님의 지도는 배우기에 적절했는가?	매우 적절하다
		적절하다	31.4%
		보통이다	25.7%
		적절하지 않다	0%
		매우 적절하지 않다.	8.6%

내용	질문	응답(%)	
		수업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 행동, 태도, 세계관 등에 변화가 있었는가?	변화가 많았다
		변화가 있다	31.4%
		그저 그렇다	17.1%
		변화가 거의 없다	0%
		변화가 전혀 없다	5.7%

내용	질문	응답(%)	
		수업이 본인의 지적/인성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었는가?	매우 도움이 되었다
		도움이 되었다	22.9%
		그저 그렇다	25.7%
		도움이 거의 되지 않았다	0%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았다	5.7%

내용	질문	응답	
		다음 학기에도 이번처럼 수업이 진행되어도 만족하겠는가?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28.6%
		보통이다	17.1%
		만족하지 않는다	0%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5.7%

[표 10] 운영과제1의 중학교 설문조사 결과 (무응답 5명/총 25명 응답, 2017년 12월)

내용	질문	응답(%)	
		선생님의 지도는 배우기에 적절했는가?	매우 적절하다
		적절하다	12%
		보통이다	40%
		적절하지 않다	8%
		매우 적절하지 않다.	20%

내용	질문	응답(%)	
		수업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 행동, 태도, 세계관 등에 변화가 있었는가?	변화가 많았다
		변화가 있다	32%
		그저 그렇다	28%
		변화가 거의 없다	8%
		변화가 전혀 없다	16%

		질문	응답(%)	
내용	수업이 본인의 지성적/인성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었는가?	매우 도움이 되었다	24%	
		도움이 되었다	16%	
		그저 그렇다	40%	
		도움이 거의 되지 않았다	4%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았다	16%	

		질문	응답(%)	
내용	다음 학기에도 이번처럼 수업이 진행되어도 만족하겠는가?	매우 만족한다	28%	
		만족한다	20%	
		보통이다	32%	
		만족하지 않는다	4%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16%	

바. 활동사진



이론수업

활동수업 A (독서와나눔)

활동수업 B (텃밭가꾸기)



2 운영과제 ②의 실행: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세계사교육 모델 개발

가.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세계사 목표 및 범위 설정

■ 세계사 교육 목표 설정

북한이탈청소년 대부분은 세계사 교육을 받은 경험이 전혀 없거나 북한 중심의 왜곡된 세계사 정규 교육 받아 보편적인 세계사 지식을 갖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런 특성을 반영하여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세계사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하나, 교양으로서의 세계사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기초 수준의 세계사 내용을 쉽게 학습하여 기본 상식 정도의 지식이 확보된다면 대한민국에서 접하는 다양한 지식의 이해와 사회와 사람과의 소통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 세계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 잡을 수 있다. 실제 북한 세계사 교과서인 <세계력사> 를 보면 ‘자국 중심의 서술’, ‘미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적대감’, ‘인간이 중시되는 시대의 내용 삭제’ 등 왜곡된 역사지식이나 역사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세계사 수업을 통해 실제 학생들이 가진 왜곡된 부분을 확인하고 객관적인 지식 및 올바른 역사 인식으로 재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셋, 세계 근현대사를 통해 한국의 특수한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이탈청소년은 분단의 아픔을 오롯이 떠안고 있지만 분단의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 학생은 드물다. 세계사 수업을 통해 세계사 흐름 속에서 한국사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도록 한다.

■ 세계사 범위 설정

1년 과정으로 제한된 시수로 이루어져야 하는 세계사 수업에서 주제 범위는 서양사에 한정하였다. 서양사 위주의 세계사 교육이 가진 문제점은 분명히 있지만 세계사 교육의 목표 중 하나인 교양으로서의 세계사를 습득하는데 서양사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민주주의나 인간 중심의 문화, 크리스티교의 역사 등은 북한에서 다루지 않거나 부정적으로 서술하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주제들은 특히 서양사에서 더욱 중요하게 다룰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 설문 조사를 통해 확인한 가장 흥미로운 세계사 사건이나 용어는 대부분 서양사와 관련된 주제였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세계사의 범위는 서양사로 한정하여 결정하였다.

나. 세부 추진 내용

■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세계사 교재 개발 (학생용 워크북)

2017년 1차 운영 때 활용한 세계사 수업 교재는 4종 교과서의 내용을 정리한 인쇄물로

매 시간 배부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인쇄물은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최대한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하여 요약본 형태로 구성하였지만 오히려 사전 지식이 없는 학생들은 요약 내용만으로 내용을 이해하기엔 무리가 있었다. 또한, 학생 활동을 교재에 삽입하지 않다 보니, 활동의 횟수가 줄고 따로 활동지를 만들고 배부해야 하는 등 활동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문제점을 반영하여 1차 워크북을 제작하였다. 학생용 워크북은 학생들이 이론 수업을 듣고 수업 내용을 효율적으로 필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업 도입부의 ‘생각 열기’, 수업 마무리에 ‘활동’을 매 주제마다 삽입하여 학생 활동을 강화하였다. 이 교재를 활용하여 2018년 수업을 진행하였다.

1·2차 운영을 토대로 최종 학생용 워크북을 제작하였고 워크북 제작의 주안점은 다음과 같다.

[표 11]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워크북 개발 주안점

<p>유의미한 주제 선정 및 내용 축소</p>	<p>서양 고대~현대사 전반을 다루며 북한청소년에게 유의미한 주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주제 안에서도 세세한 내용들은 생략하여 학습의 부담을 줄이고 부족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p>
<p>현대사 비중 확대 및 한국사 연계 강화</p>	<p>세계 현대사는 학생들의 관심이 높을 뿐 아니라 한국 분단의 역사와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고대, 중세사보다 비중 있게 다루어 세계사 속 한국의 특수성을 학습한다.</p>
<p>학생 활동 강화</p>	<p>강의 학습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주제에서 전달하는 가치 영역의 목표에 집중하고 글쓰기 등의 활동을 늘려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p>

■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세계사 교재 개발 (교사용 지도서)

학생용 워크북은 북한이탈청소년에게 유의미한 내용을 선정하고 학습 능력을 고려하여 제작하였지만 교사가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다면 교재만으로는 효율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이탈청소년이 각 주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식, 그리고 왜곡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담은 교사용 지도서를 제작하였다. 교사용 지도서는 워크북의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 목표,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수업 가이드, 지도상의 유의점, 수업 지도안, 참고 자료, 활동 자료를 담아 구성하였다. 각 요소에 담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 학습 목표는 일반적인 세계사 각 주제의 학습 목표를 기본으로 하여 북한이탈청소년에게 부족한 세계사 지식을 채우고 왜곡된 인식을 바로 잡는 것을 중심으로 설정하

였다.

둘,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수업 가이드는 수업 준비 단계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구성하고 학생에게 맞는 수업 난이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각 주제마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흥미 정도를 담았다. 또한, 북한이탈청소년에게 더욱 유의미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습 목표 중에서도 ‘가치’ 영역을 구체화 하여 제시하였다. 더불어 북한 교과서인 ‘세계력사’에서 주제 별로 강조하는 내용들을 정리하였다. ‘세계력사’를 활용하여 북한이탈청소년의 왜곡된 지식의 출처를 확인하고 기존 지식과 새로운 지식의 충돌로 혼란한 학생들의 거부감과 낯선 질문에 대비할 수 있다.

셋, 지도상의 유의점은 북한이탈청소년이 각 주제를 접할 때 보이는 반응과 그에 따른 교사의 피드백, 소화할 수 있는 학습 분량, 이론 수업 전 꼭 알아야 할 용어 등 실제 수업 단계에서 교사가 알아야 할 내용을 담았다.

넷, 수업 지도안은 ‘생각 열기’와 ‘활동’에 북한이탈청소년의 지식과 생각을 파악할 수 있는 도움말을 삽입하였으며 일반적인 교수-학습 과정의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다섯, 강의 학습만으로는 세계사가 어렵기만 한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해 영상 자료 목록과 학생 활동 자료를 상황과 시수에 맞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부록에 담았다.

여섯, ‘생각 열기’와 ‘활동’ 부분에 실제 학생들이 작성한 글을 최대한 그대로 담도록 노력하였으며 북한이탈청소년에게 더욱 유의미한 활동에는 교사가 참고하면 좋을 팁을 함께 제시하였다.

■ 워크북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

북한이탈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에 따라 세계사 교재는 다를 수 있다. 본 연구학교를 통해 개발한 워크북은 어떤 경우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일반 세계사 교과서를 활용하는 정규 학교에서는 학습 범위에 맞는 주제를 찾아 내용을 정리하고 각 주제의 활동을 작성하며 보조 교재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교사의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진다면 본 교재만으로도 충분히 학습이 가능하다. 다음은 본 교재를 주교재로 활용할 때의 교수-학습 방법이다.

[표 12] 학생용 워크북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

도입	이론		정리 활동
			
각 주제의 선지식을 확인하고 이미지를 나	• 학생들의 학습능력에 맞는 난이도로 이론 강의를 한다.		활동지 및 워크북 안의 활동을 통해 생각

누며 수업의 난이도를 파악하고 흥미를 유발한다.	• 이론 강의 후 주요 내용을 워크북에 정리한다. • 주제에 맞는 영상을 매시간 활용한다.	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	-------------------------------------------------------	------------------

■ 차시별 수업의 구성

[표 3] 차시별 수업 주제 및 내용 (2018년 운영 기준)

1학기			
기간	2018년 3~7월	참석대상 및 인원	하늘꿈학교 고2, 고3 약 35명
장소	하늘꿈학교 고2, 고3 교실	추진횟수 및 시간	총 24회, 각 수업 50분
차시	주제	내용	
1~2차시	세계사는 왜 필요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서 속 세계사의 목적 이해 ◦ 나에게 세계사가 필요한 이유 나눔 	
	세계지도로 공간성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지도 보면서 대륙-국가-수도 개념 익히기 ◦ 세계사 수업에서 다룰 주요국 이미지 확인 ◦ 활동) 국가-수도 퀴즈 	
3~4차시	4대 문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명의 특징 확인 ◦ 4대 문명 학습 ◦ 활동) 카스트제도로 보는 신분제도 	
5~6차시	고대 그리스 및 알렉산드로스 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주의 선지식 확인 ◦ 고대 그리스의 민주정치 학습 ◦ 인간 중심의 사회와 문화 이해 ◦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융합 정책 이해 ◦ 활동) 아테네와 스파르타 정치체제 비교 	
7~8차시	고대 로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마와 공화정 선지식 확인 ◦ 로마 공화정 특징 학습 ◦ 실용적인 문화 특징 이해 	
9~11차시	서유럽 봉건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세 이미지 나눔 ◦ 프랑크 왕국의 특징과 서유럽 경계 확인 ◦ '기사 윌리엄' 영화 감상→중세 이미지 획득 ◦ 신 중심의 중세 사회의 특징 이해 	
12차시	십자군 전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 발생의 다양한 이유 나눔 ◦ 십자군 전쟁의 배경 및 과정 학습 ◦ 십자군 전쟁 이후 유럽 사회의 변화 이해 	
	르네상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르네상스 선지식 확인 	

13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대 의식의 성장과 르네상스 특징 학습 ° 개성과 자유를 중시한 사회의 문화 이해
14~15차시	종교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개혁 선지식 확인 ° 근대 의식의 성장과 종교개혁 내용 학습 ° 활동) 반박문 작성
16차시	신항로 개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항로개척 선지식 확인 ° 신항로개척의 배경과 주요 항로 학습 ° 수행평가) 내가 만드는 항로
17차시	절대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대왕정 선지식 확인 ° 절대왕정의 특징 학습 ° 활동) 절대왕정의 군주는 독재자?
18차시	혁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명 선지식 확인 ° 활동) 혁명 관련 글짓기
19차시	산업 혁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혁명의 배경과 과정 학습 °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발전 이해
20~22차시	시민 혁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정치체제의 배경 이해 ° 미국 역사 탄생의 과정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자유·평등 생각 나눔 ° 프랑스 혁명 배경 및 과정 학습
23~24	미국의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발전 과정 학습 ° 남북전쟁과 노예제도의 이해 ° '노예 12년' 영화 감상→19c 미국 사회 이해
기말고사		

2학기			
기간	2018년 9~12월	참석대상 및 인원	하늘꿈학교 고2, 고3 약 35명
장소	하늘꿈학교 고2, 고3 교실	추진횟수 및 시간	총 16회, 각 수업 50분
차시	주제	내용	
1~2차시	제국주의와 민족 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일 위치 확인하기 ° 제국주의 의미와 대표 국가 학습 ° 동아시아 개항에 따른 상황 이해 ° 활동) 19C~20C 초반 한국사 상식 	
3~4차시	1차 세계대전 및 러시아 혁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대전의 선지식 및 전쟁의 피해 나눔 ° 1차 세계대전 학습 (원인 및 주요국 중심) ° 전후 처리와 한국사와의 관계 이해 ° 러시아와 공산주의 선지식 확인 ° 활동) 민족자결주의와 한국 	
	2차 세계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세계대전 학습 (원인, 주요국, 참상 중심) 	

5~6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후 처리와 한국사와의 관계 이해 ° 활동) 인물탐구 (히틀러)
7~10차시	냉전 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과 소련의 관계 토론 ° 냉전체제 학습 (미국과 소련의 대립) ° 활동) 냉전관계 지도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전체제의 위기 및 중국의 공산화 학습 ° 냉전체제 속 한반도의 역사 (6.25) ° 활동) 반핵·반전 관련 글 or 그림
11~12차시	탈냉전 소련과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혁·개방이란? 토론 ° 소련과 중국의 개혁·개방 학습 ° 당시 한국의 상황 이해
13~14차시	탈냉전 독일 통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통일 학습 ° 활동) '독일 통일, 그리고' 학생 발표
15~16차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기념관 현장 학습 ° 수행평가 실시
기말고사		

다. 수업 운영 결과 및 분석

북한이탈청소년의 세계사에 대한 지식과 왜곡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2년간 각 주제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고 지도 요소를 구체화하기 위해 수업 중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였다. 처음에 세계사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힘들어하던 학생들이 점차 새로운 지식 습득에 재미를 느끼며 활발하게 수업에 참여하고 충실하게 설문과 활동 과제를 수행하였다. 이 자료들을 토대로 지도 단원의 적합 여부를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주제를 분석하였다.

■ 학습 주제별 학생 피드백

[표 14] 학습 주제별 학생의 주제 인식 정도와 사후 피드백

학습 주제	수업 전후 주제에 대한 파악 정도	주제에 대한 학생 피드백
세계사의 필요성	지식·관심·이해도와 무관한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사에 대해 생각하게 됨 • 세계사를 배우는 동기부여가 돼서 좋았다. • 이 주제를 통해 세계사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구를 통해 알게 된 나라의 위치를 알게 되었다. • 앞으로 세계 여행 할 때 유익할 것 같다.

세계지도 읽기	<p>사전 지식도 ★★☆☆☆</p> <p>사전 관심도 ☆☆☆☆☆</p> <p>학습 이해도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도를 보는 게 더 쉬워졌다.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건데 나는 모르고 있었다. 유럽에 대해 전혀 몰랐는데 알게 되었다. 세계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한다. 내가 나라로 알고 있던 도시도 있고 도시로 알고 있던 나라도 있었다.
4대 문명	<p>사전 지식도 ★★☆☆☆</p> <p>사전 관심도 ★★☆☆☆</p> <p>학습 이해도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류의 시작에 대한 지식이고 이름과 위치를 정확하게 배웠다. 인더스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4대 문명인지 몰랐다. 4대 문명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다. 나는 중국이 제일 오래 된 문명인지 알았다. 이집트를 좋아했는데 아프리카 대륙에 속한 줄 몰랐다. 문명은 중국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3개 문명이나 더 있었다.
고대 그리스 및 알렉산드로스 제국	<p>사전 지식도 ★☆☆☆☆</p> <p>사전 관심도 ★☆☆☆☆</p> <p>학습 이해도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리스 신화를 더 알고 싶다. 그리스라는 나라는 알았는데 고대 그리스에 대해서 잘 몰랐다. 그리스는 발전된 나라라고만 알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 정치다. 배우고 나니 그리스로 꼭 여행가고 싶어졌다. 올림픽이 그리스에서 시작된 게 신기하다. 그리스에서 민주주의가 시작된 게 흥미롭다.
고대 로마	<p>사전 지식도 ★★☆☆☆</p> <p>사전 관심도 ★★☆☆☆</p> <p>학습 이해도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심이 있는 나라라서 재미있었다. 로마는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다. 로마는 도시인 줄만 알았는데 로마 제국 때가 있었다. 로마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었는데 로마가 얼마나 큰 지역을 통치했는지 알게 되었다. 고대 로마와 지금의 이탈리아를 구분할 수 있어서 좋았다.
서유럽 봉건 사회	<p>사전 지식도 ★☆☆☆☆</p> <p>사전 관심도 ☆☆☆☆☆</p> <p>학습 이해도 ★☆☆☆☆</p>	<p>(피드백이 가장 안 나온 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어렵다. 프랑크 왕국은 지혜로운 나라인 것 같다. 기독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았다. 종교가 나라를 지배할 수 있다는 점이 놀랍다. 중세 사회가 신분 차이가 심한 건 알았는데 영주-기사-농노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다. 처음 듣는 말이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
십자군 전쟁 및 중앙 집권 국가 등장	<p>사전 지식도 ★☆☆☆☆</p> <p>사전 관심도 ☆☆☆☆☆</p> <p>학습 이해도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쟁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다. 십자가를 가지고 전쟁한다고 알고 있었다. 인간의 악함을 알았다. 전혀 몰랐는데 종교 문제로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구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각했다. 무엇이든지 시간이 지나면 선한목적으로부터 부패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르네상스	<p>사전 지식도 ★★☆☆☆</p> <p>사전 관심도 ☆☆☆☆☆</p> <p>학습 이해도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혀 모르던 것을 알았다. 예술에 관심이 많아 좋아하는 시대이다. 처음 들었는데 세상에서 유명한 그림을 그린 시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간 중심의 문화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종교개혁	<p>사전 지식도 ★★☆☆☆</p> <p>사전 관심도 ★★☆☆☆</p> <p>학습 이해도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독교 역사에 대해 조금 알게 되었다. 루터와 95개조 반박문이 생각난다. 당시 상황인지도 모를 지금 교회를 생각해본다.
신항로개척	<p>사전 지식도 ★★☆☆☆</p> <p>사전 관심도 ★★☆☆☆</p> <p>학습 이해도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콜럼버스만 알았는데 다른 인물도 알게 되었다. 완벽하게 이해했다. 한 명이 그냥 호기심을 갖고 떠난 여행인 줄 알았다. 가장 재미있었다. 세계지도 만들 때 좋았다. 당시 사람들은 정말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을까? 세계가 더 발전하게 된 사건 같다.
절대왕정	<p>사전 지식도 ★☆☆☆☆</p> <p>사전 관심도 ★☆☆☆☆</p> <p>학습 이해도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력이 군주에게 있다. 복합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절대 권력 체제가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루이14세가 기억에 남는다. 왕이 절대적으로 통치하는 것을 보고 북한 독재가 떠올랐다. 절대왕정은 왕의 권력이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그런 비슷한 나라가 있다는 것이 슬프다.
산업혁명	<p>사전 지식도 ★☆☆☆☆</p> <p>사전 관심도 ★★☆☆☆</p> <p>학습 이해도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혁명의 문제점들을 보니 북한과 유사하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해 알게 되었다. 아주 중요한 주제 같다. 우리가 소로 농사할 때 서양은 공업사회가 나타난 것을 알게 되었다.
시민 혁명	<p>사전 지식도 ★☆☆☆☆</p> <p>사전 관심도 ★☆☆☆☆</p> <p>학습 이해도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랑스 혁명은 들어본 것 같다. 미국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게 되었다. 보스턴 차 사건이 인상 깊다. 미국 혁명은 국제 전쟁이라고 알고 있었다. 독립 선언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다. 혁명은 노동 혁명이나 레닌 혁명 정도만 알고 있었다.
제국주의와 민족 운동	<p>사전 지식도 ★★☆☆☆</p> <p>사전 관심도 ★★☆☆☆</p> <p>학습 이해도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가 아시아에 살고 있으니 열강이 침략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개항과 일본의 제국주의를 배운 게 인상 깊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국주의란 건 교양으로 꼭 알고 있어야 한다. • 일본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나라를 식민지 삼으려 하고 낮게 취급한 게 화가 난다. • 북한에서 '미제국주의'밖에 못 들어봤다.
1차 세계대전 및 러시아 혁명	<p>사전 지식도 ★☆☆☆☆</p> <p>사전 관심도 ★★★★★</p> <p>학습 이해도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혁명은 사회주의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주제이다. • 월슨의 민족자결주의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것이 인상 깊었다. • 스탈린이랑 김정은이랑 유사하다. 북한 생각만 났다. • 레닌이 인상 깊다. 중국은 아직도 레닌-마스주의를 배우고 있다.
2차 세계대전	<p>사전 지식도 ★☆☆☆☆</p> <p>사전 관심도 ★★★★★</p> <p>학습 이해도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이 행한 것은 기억해야 한다. • 우리 역사랑 연결되는 게 인상 깊다. • 히틀러를 좋아했는데 제대로 알고 나니 충격적이다. • 한국의 해방은 분단으로 연결된다. • 히틀러밖에 몰랐는데 슬픈 역사가 있다는 걸 아니 슬프다. •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제일 많이 생각한다.
냉전 체제	<p>사전 지식도 ★☆☆☆☆</p> <p>사전 관심도 ★☆☆☆☆</p> <p>학습 이해도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반도는 강대국 조정 하에 움직이는 힘없는 캐릭터 같다. • 쿠바 미사일 사건은 현재 북한의 핵 문제와 비슷하다. • 독일도 한국하고 비슷하게 분할 점령을 겪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자기 나라 일은 자기가 해결해야 한다. • 문화대혁명을 공부하며 모택동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한 줄 몰랐다. • 나는 문화대혁명이 중국 경제를 발전하는데 도움을 준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 우리의 분단이 서로 정권을 차지해서인 줄 알았는데 미국과 소련의 영향이 많았다.
냉전 체제의 변화 (탈냉전)	<p>사전 지식도 ★☆☆☆☆</p> <p>사전 관심도 ★★★★★</p> <p>학습 이해도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통일이 그저 말실수로만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그 과정을 제대로 배운 것이 의미 있다. • 통일은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텐안먼 사건을 보고 등소평이 이렇게 나쁜 일을 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 북한만 억압하는 줄 알았는데 중국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싶었다. • 독일 통일은 국민들의 의지와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소련 해체를 보며 공산주의 체제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통일을 보며 '교류'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 중국 경제 개혁을 모택동이 한 줄 알았다.
--	--------------------------------------------------------------------------------------------------------------------

■ 학습 주제 분석

[표 15] 학습주제 분석

학습 주제	주제 분석
세계사의 필요성	북한이탈청소년 대부분이 세계사를 배우거나 접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세계사에 대한 개념이 없거나 막연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사 교육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고 친숙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 주제를 통해 세계사의 일반적인 목적을 학습하여 세계사가 우리 삶의 가치와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해하였다. 또한, 자신의 특수한 상황에서 세계사가 필요한 이유를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세계지도 읽기	북한이탈청소년에게 생소한 '세계'는 세계 각 국가에 대한 무지로 나타난다. 이탈리아가 국가명인지 모를 뿐 아니라 로마와 이탈리아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익숙한 나라는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미국 정도지만 그나마 위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지도 수업 없이 처음부터 여러 국가를 제시하는 것은 학습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먼저, 대륙-국가-수도의 개념을 익히고 그 이후에 세계지도에서 익숙한 국가를 중심으로 주요 국가의 위치를 찾아나가는 식으로 점점 확장해 나갔다. 처음엔 세계지도를 보는 것조차 부담스러웠지만 매 수업에 학습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곳을 지도에서 확인하는 활동을 지속한다면 세계지도에 익숙해질 것이다.
4대 문명	북한 세계사 교과서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황허의 4대 문명이 아닌 대동강 문명까지 포함한 5대 문명을 가르치고 있다. 가장 오래 된 문명이 대동강 유역이며 동양의 문명이 유럽으로 전파되었다. 라는 내용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이 주제에서 이러한 왜곡된 역사지식을 바로 잡고 더 나아가 자신이 알고 있던 지식에 갇혀 있지 않고 세계사의 보편적인 역사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를 기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한국사 속 대표적인 신분제도를 비교 학습하여 신분제의 발생과 특징을 쉽게 익혔다.
고대 그리스 및 알렉산드로	북한이탈청소년 중 다수는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국민이 주인'이라는 대답 외에 더 이상의 설명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개념조차 없거나 왜곡되어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의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정치 체제의 종류와 의미를 간단하게 제시하여 민주주의의

스 제국	개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에 본격적으로 고대 그리스의 정치 변천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가 최초로 등장한 배경을 학습하고 민주주의와 자신이 경험한 정치체제와 비교하였다. 또한, 그리스의 정치적 특성과 사회의 분위기가 인간중심의 문화를 만들어 낸 점을 이해하고 다양한 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고대 그리스에 이어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융합'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주제이다. 대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점령과 독재가 아닌 유연한 문화의 수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양한 문화가 존중되는 가치를 이해하였다.
고대 로마	고대 로마 주제에선 보편 지식인 동시에 북한이탈청소년에게 유의미하다고 판단한 '로마 공화정'과 '크리스티교의 성립', '실용적인 로마 문화'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현대 공화정과 로마의 공화정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공화정이란 개념은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경험한 사회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개념 이해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로마 공화정의 발전과 쇠퇴, 제정의 성립 과정의 정치사는 분량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공화정의 개념은 충분한 설명을 하되 공화정을 이해하기 위한 정치사는 최대한 단순화하여 제시하였다. 다음 소주제인 크리스티교의 성립과 전파를 통해 세계 보편 종교로서의 크리스티교를 학습하고 북한의 크리스티교에 대한 왜곡된 지식을 바로 잡았다. 마지막으로 고대 로마의 실용적인 문화를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제시하였다. 북한 교과서에 문화사 분량이 적고 특히 현재의 모습을 볼 기회가 적기 때문에 다양한 이미지와 영상을 제시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서유럽 봉건 사회	중세 서유럽의 역사는 서양사 전체를 통틀어 북한이탈청소년이 들어 보거나 알고 있는 사건이 거의 없어 가장 생소해하는 주제이다. 실제 수업 이후 설문을 하면 관심과 이해도가 떨어져 수업 피드백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 북한 세계사 교과서에선 '교회가 판을 친 암흑사회'를 주제로 쓰는 등 일관적으로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이탈청소년의 관심에서 먼 주제이고 다소 왜곡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학습 주안점으로 서유럽 봉건 사회의 시대적 위치를 파악하고 중세 사회 특징과 크리스티교 중심의 사회를 연관 지어 이해하여 기초적인 중세 유럽의 이미지를 획득하는데 주력하였다. 서유럽 봉건 사회의 내용이 많고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중요 개념을 단순화하여 제시하고 중세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영상 자료를 활용하면 이미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십자군 전쟁 및 중앙 집권 국가 등장	'동요하는 중세 유럽 세계'라는 큰 주제 안에서 <십자군 전쟁>과 <중앙 집권 국가의 등장>의 소주제를 선정하여 학습하였다. 십자군 전쟁은 용어만 들어도 어렵지 않게 십자군과 전쟁을 연상하는 등 주제에 대한 학습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며 전쟁사에 관심이 큰 ('세계력사'에서 주로 다루는 분야가 전쟁사) 북한이탈청소년에게 적합한 주제이다. 학생들의 흥미를 바탕으로 기본 지식을 확장하고 당시 사회의 여러 입장에 따른 전쟁의 목적을 학습하며 중세 유럽 사회 특징을 이해하였다. 중앙 집권 국가의 등장 또한 변화하는 중세 유럽의 중요한 한 축이기 때문에 주요 주제로 선정하였다. 먼저 학생들이 잘 모르는 중앙 집권 국가라는 개념부터 확실히

	하고 백년 전쟁과 장미 전쟁을 학습하여 중앙 집권 국가의 등장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북한 세계사 교과서의 이 주제에 대한 소제목은 '십자군 원정과 백년 전쟁'이다. 다루는 주제는 같지만 북한은 내용 대부분을 크리스티교의 만행이란 측면만 강조하여 서술하기 때문에 이와 달리 사건의 전후 맥락과 봉건 사회가 동요하게 되는 배경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르네상스 및 종교개혁	인간의 개성과 자유로움을 중시하는 분위기, 부조리한 사회를 인식하고 개혁하고자 하는 의식, 이것들은 북한 사회에서 결여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증명하듯 '세계력사'에서는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이란 주제를 찾을 수 없다. 두 사건은 유럽 세계 변화의 한 가운데에 있는 사건들이란 점에서도 중요하지만 '자유', '개혁'이라는 가치 학습의 측면에서도 북한이탈청소년에게 중요한 주제이다. <르네상스>는 북한이탈청소년에게 용어도 생소하지만 개념 이해에 더 어려움을 겪는다. 그 시대를 이끌어간 문화 운동이라는 개념부터 받아들이기 힘들어 한다. 그러나 다행히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천재 예술가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기 때문에 대표 인물이나 작품 등 사례를 동시에 제시하여 개념 이해를 돕는다. 개념 이해와 함께 인간 중심 사회가 만들어내는 사회의 분위기 (천재 예술가의 탄생 등)를 파악하였다. <종교 개혁> 또한 근대 이행기의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발생 배경과 개혁의 내용을 통해 사건 전후의 변화를 이해한다. 특히, 사회 비판이 불가능한 사회에 있던 학생들에게 루터의 반박문을 참고하여 사회 비판과 개혁 의식의 성장에 초점을 두고 '반박문 작성하기'를 과제로 부여하였다. 우선 자신이 경험한 부조리한 사회에 대해 생각해 본 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글을 작성하였다. 두 주제를 통해 사회를 비판하고 개혁하면서 나타나는 유럽 사회의 변화를 충분히 이해하였다.
신항로개척 및 절대왕정	남북한 교과서 모두 신항로 개척을 설명하는 내용 구성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세계력사' 속 지리적 발견 (주제명)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식민지 약탈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신항로 개척은 서세동점의 시작점이기도 하지만 유럽 세계가 변화하고 점차 세계화되는 과정의 중요한 사건이라는 점을 놓치지 않도록 한다. 신항로 개척을 콜럼버스 혼자 했다고 알고 있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여러 인물·나라의 개척 과정을 세계지도를 활용하여 제시하여 흥미로운 학습이 이루어졌다. 이론 학습 종료 후엔 세계지도에 개척하고 싶은 나만의 항로를 만들어 세계지도를 익힐 수 있었다. 중앙 집권 국가가 성립되며 등장한 절대 왕정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르네상스와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인물(왕)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어려운 이해를 도왔다. 절대 왕정 시기의 특징이 잘 드러난 건축을 영상 자료로 제시하여 시대 분위기를 이해하였다. 또한, 생각 열기를 통해 이전 학습에서 배웠거나 본인이 아는 절대적인 권력을 지닌 지도자를 생각하고 발표하며 절대 권력이 존재한 시대와 나라의 정치 체제와 권력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산업혁명	산업 혁명은 시민 혁명만큼 중요한 주제이지만 '혁명'에 대해 질문하면 대부분 정

	<p>치적 의미로의 시민 혁명만 주로 떠올리며 '산업 혁명'이란 용어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학생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 주제는 산업 혁명의 의미와 이후 세계사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산업 혁명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성립과 발전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 사건이기 때문에 그 배경과 과정, 결과 모두 다루었다. '세계력사'에선 산업 혁명의 순기능과 자본주의의 성립에 대한 서술은 없고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노동계급의 투쟁 발생에 초점이 맞춰 있다. 또한, 산업 혁명으로 나타난 문제점이 빠져 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산업 혁명의 성과와 문제점으로 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한 개념에 치우치지 않고 둘을 연결시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주제를 통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모두 경험했지만 개념 정립이 안 돼 있는 학생들이 두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p>
시민 혁명	<p>'시민 혁명'을 학습하며 '혁명'의 의미와 근대 민주주의의 성립 과정을 이해하는데 집중하였다. 대개 북한이탈청소년들에게 혁명은 김일성의 항일 혁명이나 공산주의와 관련한 것을 생각한다. 직접적이고 왜곡된 혁명에 대한 개념을 바로 잡고 구제도에 반발하여 일어나는 시민 혁명의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였다.</p> <p>북한 교과서는 미국 혁명에 대해 객관성을 잃은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서술로 일관한다. 그러나 의외로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미국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드러내기보다 미국은 어떻게 생겨나고 강대국이 되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기 때문에 습득에 어려움이나 부담감은 없었다. 미국 혁명의 마지막으로 독립 선언문을 통해 인권과 국민 주권이란 개념의 등장과 가치에 중점을 두어 학습하였다.</p> <p>영국 혁명은 의회의 권리 획득 이후 등장한 입헌 군주제라는 정치 체제의 역사를 통해 현재 영국과 일본 등의 정치 체제를 이해하였다.</p> <p>마지막으로 프랑스 혁명을 통해 인권과 자유, 평등에 대한 인식과 그 가치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하였다. 다만 전개 과정에 치우쳐 전달하면 혁명 내용이 복잡해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암기가 아닌 흐름을 통하여 프랑스 혁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p>
제국주의와 민족 운동	<p>지금까지 서양사에 국한한 세계사를 학습하였다면 이번 주제부터는 세계 곳곳이 제국주의 질서 속에 편입되어 변해가는 역사를 본격적으로 학습하였다. 제국주의는 세계사적 의미도 크지만 한국 분단의 역사를 세계사 흐름 속에서 이해하는 첫 개념으로 매우 중요하다. 또한, 한국 뿐 아니라 중국도 서구 열강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북한이탈청소년은 북한과 지리적·사상적으로 가까운 중국의 역사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중국의 근대화 과정도 학습하였다. 제3국 출생 청소년은 특히 고향의 역사라고 여기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지만 막상 사전 지식은 전혀 없기 때문에 기초적 수준으로 전달하였다. 북한이탈청소년은 제국주의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국주의의 배경을 이해하고 개념 정립을 해야 다음 단원 이해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중국 근대화 운동을 학습한 후, 한 학생이 "북한 김정연도 단 한번이라도 인민들의 진정한 지지를 받는 일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발표를 했다. 중국 근대화 운동은 위에 언급한 것처럼 간략하게 제시하되 성공 여부를 떠나 혼란스러운 사회를 이겨내고자 많은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에 초점을 두어 학생들이 북한 사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수업이 되도록 한다.</p>

1차 세계대전 및 러시아 혁명	<p>세계사 전반에서 가장 알고 싶고 흥미로운 주제를 물어보면 단연 첫 번째는 세계 대전이다. 그러나 세계 대전에 대해 아는 것은 독일, 히틀러 정도에 그치며 1·2차 세계 대전을 구분하지 못한다. 1차 세계 대전에 대한 사전 지식은 없지만 "도대체 왜 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어요?"라는 질문을 하며 많은 학생이 흥미를 보였다. 이 질문에 대해 단순히 사료에 보 사건 자체만을 설명하기보다 사건의 배경이 된 복잡한 발칸 반도 상황을 최대한 간단하고 쉽게 설명하였다. 상황은 다르지만 사료에 보 사건을 학습한 후 '북한도 끝장을 보는 사건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반응이 있었다. 교사가 질문하지 않아도 세계사 사건과 북한의 현실을 비교하며 학습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1차 세계 대전은 역사상 처음 벌어진 세계 전쟁이며 제국주의 열강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동맹을 맺어 일으킨 전쟁이라는 의미를 전달하였다. 그리고 전후 처리 과정에서 등장한 민족 자결주의가 세계 곳곳, 특히 한국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과제 활동을 통해 학습하였다. 러시아 혁명은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의 성립이라는 주제로 접근하면 학생들의 흥미가 높아지고 그 과정을 학습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인다. 중국(제3국 출생 청소년에 해당)은 여전히 마스-레닌주의를 가르치고 있어 다른 주제에 비해 생소함이 적다. 북한에서 러시아 혁명에 대해 넘치게 배운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세계사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은 자신이 경험한 체제인 공산주의 국가가 어디로부터 시작 됐는지 궁금하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교육 차이에 관계없이 소련의 성립 과정을 통해 세계 현대사에 큰 영향을 준 사회주의 국가와 그 의미를 충분히 학습하도록 한다.</p>
2차 세계대전	<p>전쟁의 배경, 전개, 결과를 학습하는 내용 구성은 제1차 세계 대전과 동일하다. 한국사 연계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도 동일하나 1차 세계 대전이 한국의 일제 강점기와 이어진다면 2차 세계 대전은 한국의 독립과 이어진다.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한국이 독립되었다는 것은 한국사 시간에 배워서 알지만 대내 상황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세계사와의 연계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세계사 시간에 세계 대전 속에서 한국사를 학습하니 '한국 독립과 연관된 줄 몰랐는데 인상 깊다.', '정신 차려서 다신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심해야겠다.'와 같이 세계사의 흐름에 영향을 받는 한국사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국사 시간에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한국이 독립했다는 것을 배우지만 사실 북한은 다르게 가르치고 있다. '세계력사'는 한국의 독립은 '김일성'이 이루어 낸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런 왜곡된 서술이 세계사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혼란을 가져오기도 하는데 한 번의 수업으로 이런 인식이 바뀌는 것이 쉽지 않다. 우리가 배우는 것이 세계사 보편적인 지식이라는 것을 계속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북한이탈청소년 특히, 남학생들은 히틀러에 대한 옹호·공정의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다. 부강한 국가에 대한 열망과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에 대한 선망이 있어 왜곡된 인식으로 히틀러를 평가한다. 이런 인식은 인종주의, 유대인 학살 등을 설명으로 풀어 나가는 이론 강의만으로 쉽게 바뀌지 않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홀로코스트 관련한 영상 여러 개를 시청한 후 관련 글을 쓰거나 감상 발표를 하는 등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늘려 인식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유도하였다.</p>
냉전 체제	<p>북한이탈청소년에게 '냉전'이란 단어는 처음 들어봤거나 10명 중 1명 정도만 미국과 소련이란 나라를 연상할 수 있다. '전혀 몰라서 알고 싶다.', '어려울 것 같아서 관심이 간다.' 정도로 관심이 낮지만 '한국 분단'과의 연관성을 제시하면 호기심과</p>

	<p>학습 의지를 보인다. 본 주제의 주안점은 냉전 체제가 만들어 낸 각국의 상황, 특히 한반도의 분단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다. 분단의 슬픔을 오롯이 안고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에게 이 주제는 분단의 원인과 현재까지 이어지는 한반도 문제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주제이다. 한국 분단에 대해 많은 학생들은 한국 내의 정권 다툼과 전쟁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냉전 체제란 대외적인 상황의 이해가 더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냉전 체제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 후 냉전 체제 속 한국의 분단 역사를 제2차 세계 대전 직후부터 한국 전쟁까지 다루었다. 냉전 체제가 만든 여러 사건 또한 한국의 상황과 비교 학습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이다. 독일의 분단과 한국 분단을, 베트남 전쟁과 한국 분단을, 중국의 공산화와 문화 대혁명을 보며 북한 공산 체제의 모순과 억압적인 상황을, 쿠바 미사일 사건을 보며 북한과 미국의 핵을 둘러싼 끊임없는 대치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본 주제와 다음 주제 (탈냉전)는 한반도 통일과 평화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주제임을 강조한다.</p>
<p>냉전 체제의 변화 (탈냉전)</p>	<p>냉전과 마찬가지로 탈냉전이라는 주제도 북한이탈청소년에게겐 생소한 주제이다. 그러나 소련 해체, 중국 개혁 개방, 독일 통일이란 소주제를 제시하면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다. 이 세 사건 모두 북한이탈청소년과 제3국 출생 학생들에게 가까운 주제로 다가가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은 공산주의 국가라는 유사점으로 소련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편이다. 러시아 혁명을 통한 공산주의 국가의 탄생에 이어 어떻게 공산주의 국가의 대표인 소련이 무너지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학습하였다. 공산주의 체제의 한계를 겪으며 무너진 소련을 보며 북한 사회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 문제점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다.</p> <p>중국의 개혁·개방의 주제에서 평소에 많은 학생이 궁금했던 점인 '중국과 북한의 정치 체제는 같은데 어떻게 중국은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고 중국 발전 뒤에 가려진 문화 대혁명 (냉전에서 다른 주제)과 천안문 사태를 통해 중국의 억압적인 정치 상황을 살펴보았다. 실제 제3국 출생 학생들은 수업 이후에 자신은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에 대해 긍정적인 점만 중국에서 배웠는데 실제 부정적인 면도 있었다는 점에 충격을 받았다는 피드백이 많았다.</p> <p>독일 통일은 남한 학생 뿐 아니라 북한이탈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주제이다. 실제 독일 통일 주제에 대한 관심이 세계 대전만큼 높고 '말실수로 이루어진 통일'이라는 단편적인 지식도 대부분의 학생이 알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서독에 비해 공산주의 동독의 경제가 어려워 동독에서 서독으로 탈출하는 일이 빈번했다는 점, 서독이 일관된 동방 정책을 펼쳤다는 점 등의 독일 통일 배경은 북한이탈청소년들이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 동독과 서독의 통일 전 상황부터 통일이 결정되는 순간까지의 과정을 학습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연결해서 생각해보았다. 서독과 동독의 경제 차이로 인해 통일 이후 독일의 경제가 어려웠던 점을 제시하여 통일 이후 한반도의 문제점도 함께 고민해보았다.</p>

■ 학업 성취 결과

세계사 교과와 객관적인 학업 성취도 향상이 주요 목표는 아니지만 교양으로서의 세계사 상식 습득이 달성되었는지 여부는 세계사 시행 전후 실시한 기본 상식 평가, 형성평가, 학기 말 고사 등의 지필평가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세계사 상식 평가를 실시하였다. 2017년 3월 세계사 수업 이전에 아래 <평가 문항>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보았고 결과는 평균 1.23점이었다. 1년의 세계사 수업을 모두 마치고 12월에 같은 문제를 같은 학생들이 다시 풀어 본 결과, 평균 6.76점으로 점수가 크게 향상되었다.

[표 16] 세계사 학습 전후에 시행한 상식 평가 문항

<평가 문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원전 800년경 그리스에 촌락들이 모여 형성 된 도시 국가는? 2) 검투, 전차 경기 등을 했던 로마 제국의 원형 경기장은? 3) 가톨릭 교회의 수장이자 로마의 주교는? 4) 중세 시대 뾰족한 건축물에 표현된 예술 양식은? 5) 14~16C 개인의 해방과 자유를 강조하는 인간 중심의 문화를 탄생시킨 문화운동은? 6)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며 종교 개혁을 일으킨 인물은? 7) 가장 먼저 신항로 개척에 나선 유럽의 두 나라는? 8) "짐은 곧 국가"라고 말하며 프랑스의 절대 왕정을 확립한 왕은? 9) 산업 혁명이 시작된 나라는? 10) '2차 세계 대전' 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둘째, 학기 말 고사를 실시하였다. 북한이탈청소년에게 세계사는 낯설고 부담스러운 과목이기 때문에 시험이 어려우면 수업에 대한 부담도 가중된다. 세계사를 쉽고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필 평가의 난이도는 매우 쉬운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1~2학기의 시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성취도에 큰 의미는 없지만 각 시험마다 학생들이 대체로 좋은 성적을 받았고 이후 세계사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 수업 태도가 더 좋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17] 2017~2018년 세계사 학기말 성적

2017년도 1차 운영		2018년도 2차 운영	
1학기 평균	75.83	1학기 평균	72.73
2학기 평균	71.06	2학기 미 실시	

■ 학생 설문 조사 (세계사에 대한 인식)

- 세계사 필요성에 대한 인식 향상

세계사를 접한 적은 없으나 한국 사회에 정착하고 세계사에 대한 필요성은 수업 전부터 학생 대부분이 인식하고 있었다. 세계사 학습 이후에도 학생들이 스스로 세계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지 조사하기 위해 설문을 실시한 결과 ‘필요하다’ 고 대답한 학생이 대다수였고 1학기 80%에서 2학기 90%로 상승하였다.

- 세계사에 대한 접근도 상승

세계사 수업 이전, 세계사를 전혀 접한 적이 없는 학생이 절반에 가까웠고 (17명 중 7명) 세계사 관련 아는 것이나 알고 싶은 내용이 전혀 없는 학생이 대다수 (17명 중 8명)였다. 때문에 세계사의 필요성은 인지하더라도 어렵고 먼 이야기로 생각하고 학습에 대한 의지가 크지 않았다. 매학기 수업 종료 시점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학기 종료 후 설문에서 대부분의 학생이 세계사를 어려운 과목이 아닌 쉬운 과목으로 인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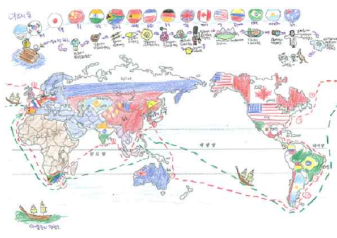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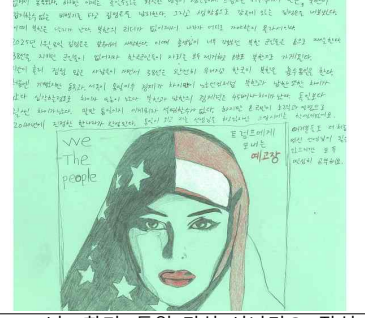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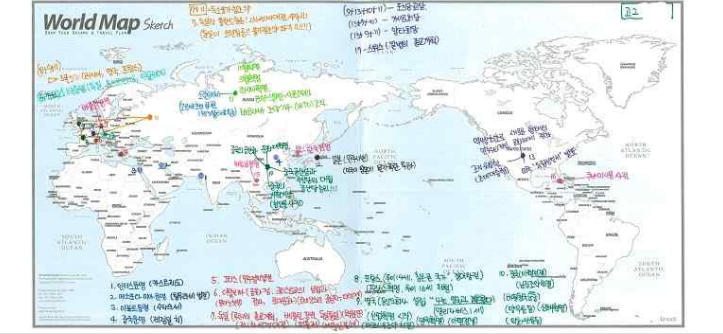


[그림 4] 세계사교육 설문조사 결과

라. 활동사진 (주요활동 사례)

<p>도입 활동</p> <p>생각 열기</p> <p>전쟁은 무엇 때문에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 상황을 생각해봐라.</p> <p>국가와 국가 사이에 정치적 목적이 어긋날때 타협할수 없을때, 지형부족으로 고산대군 격돌때 상모투기의 자원을 탐내서, 먼곳에서 군대에서 개인적으로 사냥을 할때 대치하는 양떼(대중 때) 무력으로 맞서는 나라들이 전쟁할수 있다.</p>	
	<p>주제에 관한 '생각 열기'</p> <p>작성한 글 발표</p>

<p>강의 학습</p>	<p>학습 내용 필기</p>	<p>이론 강의의 PPT 수업</p>
	<p>학생 활동</p>	<p>글쓰기 활동 우수 학생 선정</p>
	<p>주제 정리 활동</p>	<p>학습 주제에 대한 설문지</p>
	<p>주제 설문</p>	<p>설문 작성</p>

수행 평가	<p>비밀의 국경선</p> <p>작년 2월 14일</p> <p>1. 100년 전 독립을 잃고 있는 '나'를 살리기에 달려간 백범민을 떠올려주세요. * 100년 전 백범의 독립 투쟁 / 100년 전 '나'를 살리기에 달려간 백범민</p> <p>1. 나는 살아서... 2. 나는 죽어서... 3. 나는 태어나서... 4. 나는 죽어서... 5. 나는 태어나서... 6. 나는 죽어서... 7. 나는 태어나서... 8. 나는 죽어서... 9. 나는 태어나서... 10. 나는 죽어서...</p> <p>2. 북한의 '3대초등' 단원본을 참고하여 1학년의 단원본을 작성하세요. * 단원본 위주 작성(과목 / 1과 / 10주 이상)</p> <p>3. 나의 학습계획서 따라 1학년의 단원본을 작성하세요. ①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나의 학습 계획을 세워주세요. ② 학습을 할 때 나의 학습 계획을 지켜주세요. ③ 학습을 할 때 나의 학습 계획을 지켜주세요. ④ 학습을 할 때 나의 학습 계획을 지켜주세요. ⑤ 학습을 할 때 나의 학습 계획을 지켜주세요. ⑥ 학습을 할 때 나의 학습 계획을 지켜주세요. ⑦ 학습을 할 때 나의 학습 계획을 지켜주세요. ⑧ 학습을 할 때 나의 학습 계획을 지켜주세요. ⑨ 학습을 할 때 나의 학습 계획을 지켜주세요. ⑩ 학습을 할 때 나의 학습 계획을 지켜주세요.</p>	
	<p>2017년 1학기 '반복문' 작성</p> <p>2017년 2학기 '나라 소개하기'</p>	 
지도 활동	<p>2018년 1학기 '나만의 항로 만들기'</p> <p>2017년 2학기 '통일 가상 시나리오' 작성</p>	 <p>학습 내용 세계지도에 표기</p>

가.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수학교육의 목표 설정

15년간 북한이탈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하늘꿈학교는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수학교육 모델을 개발하며 목표 역시 다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바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수학교육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수학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학적 지식을 양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아닌 수학적 힘을 기르는 데에 있다. 물론 북한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수학적 지식의 양이 아주 적기 때문에 양적 보완의 중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많은 양의 지식을 전달하더라도 모두 수용하고 활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절망에 빠지기 쉽다. 특히 자존심이 강한 북한이탈청소년들이 남한 학생들보다 수학을 잘 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이미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양만 보완하려는 시도는 위험하다. 그러므로 북한 청소년을 위한 수학교육은 평생에 걸쳐 수학을 학습하고 활용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데에 목표를 두는 것이 더 적절하다. 수학교과에 대한 내적 동기가 높은 북한 청소년에게 '내가 할 수 있다.' 는 마음을 획득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기에 본 목표를 가지고 연구해보는 것은 유의미한 일이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한다. 수학적 힘을 기른다는 궁극적인 목표 아래 구체적으로 실행할 하위 목표 두 가지를 설정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수학적 사고 능력을 기르는 것이며 두 번째는 기초 수학 능력을 포함한 실용적 수학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나.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수학교육에서 다룬 주제 및 학습 내용

[표 18]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수학교육의 주제 및 학습 내용

학기	수업 주제	수학 교육과정 상의 학습내용
1학기	01. 오리엔테이션(통계로 말해요)	- 통계자료 해석하기
	02. 소프트웨어의 이용	- 비율의 의미와 구하는 법, 백분율 - 평균의 의미와 구하는 법
	03. 이지통계를 이용한 자료의 정리	- 자료의 정리
	04. 자료의 정리	- 상대도수의 의미와 의의 - 도수분포표에서의 평균 구하는 법
	05. 설문조사 실습	
	06. 설문조사 결과 정리	- 자료의 시각화
	07. 설문조사 결과 발표	
	08. 엑셀을 이용한 대푯값	- 대푯값(평균, 중앙값, 최빈값)
	09. 대푯값의 한계를 산포도로 이해하기	- 산포도(편차, 분산, 표준편차)

2학기	10. 게임하며 익히는 확률	- 확률의 의미와 기본 성질 - 여사건의 확률
	11. 뽑고 즐서기	- 순열과 조합
	12. 윷놀이 한마당	- 독립시행과 독립시행의 확률
	13. 비판적인 사고	- 자료의 해석

다. 수업 운영 형태

1) 수업의 대상: 하늘꿈학교 고등학교 3학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
북한 청소년을 위해 특성화된 수학교육은 진교생에게 시행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나 본 연구를 통하여 본 방향의 수학교육이 북한 청소년에게 실제로 큰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하고 개선한 후에 적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곧 대학에 진학해 수학적 사고 능력 및 실용적 수학 능력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고등학교 3학년에 본 수업을 먼저 적용하였으며, 이후에는 전 학년에 걸쳐 적절한 시기에 본 수업을 적용할 수 있다.

2) 수업의 운영: 2018학년도 총 40차시
정기고사와 논술평가, 공휴일과 체험학습이 있는 주를 제외하고 1학기에 24차시, 2학기에 16차시로 진행되었다. 수업의 계획 단계에서 1학기에는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수학을 활용하기’라는 주제, 2학기에는 ‘정보사용자로서 수학을 활용하기’라는 주제를 설정하였으나 실제 수업을 진행하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방향으로 일부 변경하여 융통성 있게 수업을 진행하였다. 1학기 수업을 진행하며 활동이 많은 수업의 특성상 50분 단위로 수업이 이루어져 연속적인 주제 수업에서 다소 비효율적이라는 피드백이 있어 2학기에는 매 수업을 2차시(100분) 단위로 진행하였다.

3) 수업 방식: 학생 중심의 소프트웨어 활용 수업 및 강의식 수업과 활동 수업
- 학생 중심 수업: 1학기에는 기업가와 소비자가 되어 설문 조사를 하고 이를 발표하는 수업, 의사결정을 하는 수업 등이 있었다. 자료를 정리하고 토론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등의 수업도 있었다. 2학기에는 정보 사용자로서 직접 자료를 찾고, 재해석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토론하며 학생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졌다.
- 소프트웨어 활용 수업: 수학을 실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엑셀의 기본 함수 기능을 익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수학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많은 양의 지식을 강의식으로 습득하는 것보다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다양한 예를 관찰하고 특징을 발견할 수 있게 돕고자 이지통계 프로그램을 수업에서 활용하였다.
- 활동 수업: 남한 학생들은 수업에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며 현재 교육의 방향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교과 내용을 습득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북한이나

중국에서 활동을 통해 학습한 경험이 매우 적다. 따라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개념을 발견하는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의미 있었다. 직접 룰렛을 돌려보고, 윷놀이를 하며 독립시행을 익히고, 추첨상자에서 공을 뽑는 게임을 하며 확률의 기본 개념을 발견하기도 했다.

- 강의식 수업: 가장 일반적이고 익숙한 수업 방식을 본 수업에도 적용한 이유는 초등학교 수준의 기본 수학 개념이나 교과서의 일부 용어, 개념은 강의식 수업을 통해 빠르게 익히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학생마다 활동 수업과 강의식 수업 중 선호하는 방식의 수업이 달랐기 때문에 적절히 강의식 수업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고 판단한 바, 필요한 차시에는 강의식 수업을 적용하였다.

라. 세부 추진 내용

■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수학교육 교재 개발

1) 지도안: 각 주제별로 지도안과 함께 적절한 학습지를 제작한다.
- 수업 전 자료를 검색, 준비하여 수업에 가능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다.
-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수학 학습 수준을 고려해 용어를 적절히 사용한다.
- 매 주제가 종료되면 지도안을 가지고 진행했던 수업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재 개발에 활용한다.

2) 교재 개발 사항
- 수업 전 제작한 지도안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한 후 북한이탈청소년들의 반응을 고려하여 지도안을 수정하여 교사용 지도서에 참고 자료로 삽입한다.
- 실제 수업에서 사용했던 학습지를 주제별로 엮고 편집하여 일반적인 북한이탈청소년들이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재로 제작한다.

■ 차시별 수업의 구성

[표 19] 운영과제3의 차시별 수업 내용 (2018학년도 운영 기준으로 작성)

기간	2018년 3월 ~ 7월	참석대상	고등학교 3학년
장소	고등학교 3학년 교실 및 컴퓨터실	추진횟수 및 시간	총 24차시, 차시별 50분
차시	주제	내용	
1차시 ~ 3차시	[01.오리엔테이션] 통계를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다양한 예시를 관찰	1) 『SBS 김범주의 친절한 경제』시청을 통해 흥미로운 통계를 관찰 ⇨ 통계자료의 적절성에 대해 토론 ⇨ 통계자료의 사용과 수학적 사고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	

	하며 적절한 통계자료의 활용, 수학적 사고, 의사소통의 중요성 이해하기	2) 『전국 학생 통계 활용 대회』를 시청을 통해 통계 자료를 비판적으로 관찰 ⇨ 수학적으로 의사소통 하는 것의 중요성과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 토의 ⇨ 통계자료의 적절성에 대해 토의 ⇨ 좋은 발표의 조건 토의 3) 나만의 기업을 계획하고 통계활용 계획세우기
4차시 ~ 5차시	【02.소프트웨어의 이용】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더 효율적으로 계산이나 자료의 정리를 할 수 있음을 이해하기	1) 평균의 의미 학습하기 ⇨ 통계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이 관심 있는 자료를 찾아보기 ⇨ 찾은 자료를 엑셀에 표로 정리하기 ⇨ 엑셀에서 평균 구하기(전체 자료의 합을 자료의 개수로 나누는 방법, 평균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 ⇨ 엑셀의 편리함을 이해하기 2) 엑셀로 정리했던 자료를 이지통계 프로그램에 입력하기 ⇨ 이지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줄기와 옆 그림,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도수분포다각형으로 나타내보기 ⇨ 관찰하기 ⇨ 소프트웨어의 편리함 이야기해보기
6차시 ~ 7차시	【03.이지통계를 이용한 자료의 정리】 자료의 정리 방법을 강의식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다양한 예를 관찰한 후 그 특징을 추론하기	1) 관심 있는 자료를 통계청 사이트에서 더 찾아 이지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리해보기 ⇨ 교과서에 있는 자료를 이지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리해보기 ⇨ 이지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리한 모든 자료를 캡처하여 모으기 ⇨ 정리된 자료를 관찰하며 줄기와 옆 그림,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도수분포다각형의 특징을 추론하기 ⇨ 다양한 정리 방법의 특징과 장단점 이해하기 2) 다양한 자료의 정리 방법을 이해하고 문제 풀어보기
8차시 ~ 9차시	【04.자료의 정리】 4~7차시 수업을 통해 다루지 못한 상대도수, 도수분포표에서의 평균을 엑셀을 통해 이해하기	1) 엑셀에서 '비율' 구하기 연습 ⇨ 서로 다른 자료를 비교하며 상대도수의 개념 익히기 ⇨ 엑셀에서 상대도수를 구하기 ⇨ 두 자료 비교하기 ⇨ 상대도수의 의미 알기 2) 도수분포표가 주어졌을 때의 평균 구하는 방법 추측하기 ⇨ 계급값을 이해하기 ⇨ 계급값을 이용해 평균 구하기 ⇨ 실제 평균과 비교하기 ⇨ 적용하기
10차시 ~ 11차시	【05.설문조사 실습】 설문조사의 올바른 태도를 이해하기 자신만의 설문지를 제작하기	1) '이상한 설문조사'에 대한 기사 읽기 ⇨ 설문조사를 조작하는 것의 윤리성에 대해 토론하기 ⇨ 각자의 설문조사 경험을 나누기 ⇨ 설문조사를 부탁할 때와 설문조사에 참여할 때의 올바른 태도 이해하기 2) 자신만의 설문조사 주제와 목적 정하기 ⇨ 주제와 목적에 맞는 설문조사 문항 제작하기 ⇨ 설문 조사지를 한글을 이용하여 만들고 출력하기 - 과제 : 설문조사 실시하기
12차시 ~ 13차시	【06.설문조사 결과정리】 설문조사의 결과를 컴퓨터를 이용해 설명하기 좋게 정리하기	1) 실시한 설문 조사지를 모으기 ⇨ 설문 조사의 결과를 계수하기 ⇨ 계수한 결과를 표로 정리하기 ⇨ 표로 정리한 결과를 그래프 등으로 나타내기 2) 보기 좋게 정리한 설문조사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파워포인트 발표 자료 만들기

14차시 ~ 16차시	중간피드백	※ 발표 수업이 낯설고 익숙하지 않아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았음.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교사가 발표의 예시를 제시하고 함께 준비하는 시간을 가짐 ※ 지필평가를 위해 비율, 자료의 정리, 상대도수, 도수분포표에서의 평균 등을 다시 한 번 정리함 ※ 학생들이 수업에 대해 피드백 하는 시간을 가짐
17차시 ~ 19차시	【07.설문조사 결과발표】 각자의 목적에 따라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발표하고 서로 피드백하기	※ 매 차시 각 학생이 아래의 순서로 동일하게 발표 각 학생이 자신의 설문 조사 결과를 10-15분 내외로 발표 ⇨ 발표자에게 궁금한 점을 질문, 발표자가 응답 ⇨ 동료평가지에 평가 및 피드백 작성 ⇨ 중요한 피드백 사항을 발표자에게 이야기해주기
20차시 ~ 21차시	【08.엑셀을 이용한 대푯값】 평균의 한계를 이해하고 대푯값의 의미와 그 종류 이해하기,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대푯값을 사용하면 좋을지 토의하고 선택하기	1) 평균이 같은 두 자료를 관찰 ⇨ 평균이 같으면 두 자료는 결과적으로 똑같이 해석할 수 있는지 토론 ⇨ 극단적인 예를 관찰 ⇨ 평균의 한계를 이해하고 대안 토의 ⇨ 대푯값 학습(중앙값, 최빈값) 2) 엑셀을 이용하여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구해보기 ⇨ 각 대푯값을 언제 사용하면 좋을지 토의하기 ⇨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푯값 선택해보기(2017년 8월의 평균 기온과 강수량을 엑셀에 정리하고 대푯값 선택)
22차시 ~ 24차시	【09.대푯값의 한계를 산포도로 이해하기】 자료의 특징을 더욱 잘 설명할 수 있는 산포도에 대해 이해하고 엑셀에서 분산과 표준편차 구하기	1) 대푯값이 같은 자료를 살펴보기 ⇨ 대푯값이 자료의 특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지 토론 ⇨ 대푯값 외에 어떤 대안이 있을지 자유토론 2) 산포도 학습(산포도의 의미) ⇨ 산포도를 구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추측하기 ⇨ 편차를 이해하기 ⇨ 산포도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지 토론 ⇨ 분산, 표준편차 학습 3) 분산, 표준편차를 엑셀을 이용하여 구하기 ① 편차 ⇨ 편차의 제곱 ⇨ 편차의 제곱의 평균 구하기 ② 분산, 표준편차 함수를 이용하여 분산, 표준편차 구하기

기간	2018년 9월 ~ 11월	참석대상	고등학교 3학년
장소	고등학교 3학년 교실	추진횟수 및 시간	총 16차시, 8회 회당 2차시(100분)
차시	주제	내용	
1차시 ~ 4차시	【10.게임하며 익히는 확률】 간단한 게임을 하며 확률의 기본 성질을 이해하기	1) 룰렛을 돌리며 별첨자 정하기 ⇨ 많은 칸을 얻고 싶었는지, 적은 칸을 얻고 싶었는지 이야기하기 ⇨ 면적과 확률의 비례 관계 이해하기 2) 추첨 상자에 어떤 색의 공이 몇 개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공 맞추기 게임 하기 ⇨ 추첨 상자에 공이 몇	

		<p>개 있는지 아는 상태에서 공 맞추기 게임 하기 ⇨ 공이 뿔힐 확률,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확률, 반드시 일어날 확률에 대해 이해하고 확률의 기본 성질 알기</p> <p>3) 생일이 같을 확률에 대해 퀴즈 맞추기 ⇨ 25명 이상이 되면 생일이 같은 학생이 있을 확률이 더 높은 이유 이해하기 ⇨ 여사건의 확률 이해하기 ⇨ 문제 풀기</p>
5차시 ~ 8차시	<p>【11.뽕고 줄서기】 직접 세어보면서 순열과 조합을 구하는 방법 이해하기</p>	<p>1) 팩토리얼이라는 용어와 기호 이해하기 ⇨ 팩토리얼을 사용하여 간단한 순열의 수 구하기 ⇨ 순열 기호와 순열 구하는 방법 이해하기 ⇨ 직접 세어본 순열의 수와 공식을 이용한 순열의 수 비교하기</p> <p>2) 조합과 순열의 관계를 언어적으로 이해하기 ⇨ 조합과 순열의 관계를 식으로 이해하기 ⇨ 조합의 수를 구하는 공식을 이해하기 ⇨ 문제 풀기</p>
9차시 ~ 12차시	<p>【12.웃놀이 한마당】 웃놀이를 하며 독립시행의 의미를 이해하고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을 이해하고 비교하기</p>	<p>1) 웃놀이를 자유롭게 하며 웃놀이 방법 알기 ⇨ 독립시행의 의미 학습하기</p> <p>2) 웃 하나를 던지는 독립시행을 통해 웃의 등과 배가 나올 확률을 구하기 ⇨ 웃 4개를 던지는 독립시행을 통해 도, 개, 걸, 웃, 모가 나올 확률을 구하기 ⇨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에 대해 생각해보기</p> <p>3) 도, 개, 걸, 웃, 모가 나올 확률을 독립시행의 확률 구하는 방법을 통해 구해보기 ⇨ 실제 통계를 이용해 계산했던 확률과 비교해보기 ⇨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에 대해 이해하기</p>
13차시 ~ 16차시	<p>【13.비판적 사고】 확률과 통계와 관련한 다양한 글을 읽으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보기</p>	<p>1) 교사가 제시한 확률과 통계와 관련된 기사를 읽어보기 ⇨ 요약하기 ⇨ 기사에서 제시한 통계 자료 해석하기 ⇨ 기사와 다른 관점에서 통계자료 바라보기 ⇨ 비판적 글쓰기</p> <p>2) 스스로 확률과 통계와 관련된 흥미로운 기사를 찾아보기 ⇨ 요약하기 ⇨ 기사에서 제시한 통계 자료 해석하기 ⇨ 기사와 다른 관점에서 통계자료 바라보기 ⇨ 비판적 글쓰기</p> <p>3) 비판적인 사고의 중요성에 대해 토론하기</p>

마. 차시별 수업 운영 결과 및 분석

1) 오리엔테이션 수업 결과

- 오리엔테이션 결과, 북한이탈청소년들의 동기는 매우 높으나 현재 수준이 그 동기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당장 성취에 대한 바람을 가지고 있기도 했으나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수학을 잘 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

고 싶은 욕구가 더욱 컸다. 따라서 북한이탈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은 수학적 지식인 동시에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수학이었다.

- 여러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통계자료에 대해 곧잘 이해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이는 통계 자료가 다양한 표나 그래프의 형태로 주어졌기 때문이며 실생활과 연관이 높았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이 통계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 태도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었으나 문화적으로 잘 모르는 용어들에 대해 함께 학습하면서 수업을 진행해야 함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면 연말 정산, 신용카드,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등에 대해 문화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하면 통계자료도 전혀 해석하지 못했다. 수학 학습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해 함께 이해하는 수업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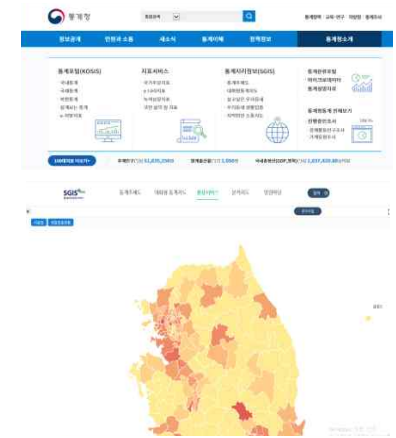
- 많은 학생들이 수업의 내용에 매우 잘 집중하며, 특히 동영상을 시청할 때에 집중도가 매우 높다. 다만, 일부 학생들의 경우 이해를 잘 하고 분석력이 높은 학생에게 가려져 자신의 의견을 전혀 말하지 못하기도 했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은 수업에서 발표를 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말해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 학생들을 위해 이후의 수업에서 모든 학생들이 이야기하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했다.

2) 소프트웨어의 이용 수업 결과

- 평균을 ‘대략적인 값’이나 ‘중간’ 정도로 설명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평균의 정확한 의미나 구하는 방법을 서술할 수 있는 북한이탈청소년이 거의 없었다.

- 통계청 사이트에 접속해 다양한 자료를 관찰할 때, 북한이탈청소년들 중 대다수가 굉장히 흥미로워했다. 북한에서는 다양한 자료가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는다며 이렇게 많은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에 대한 신기함을 드러냈다. 일단 북한은 통계자료를 일반적으로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자료를 정리하는 통계 수업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학생들이 통계청 자료를 자유롭게 관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제공하자 본인들이 원하는 자료를 찾아보며 즐거움을 느꼈다.

- 엑셀을 이용하여 평균을 구하면서 계산에 대한 두려움이 해소된다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의 학습 결손은 생각보다 훨씬 크다. 평균을 모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 이를 드러내주기도 한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의 학습 결손은 이들의 연산 능력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북한에서 장사를 경험한 학생이 대다수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기초 학습을 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간단한 정수나 자연수의 계산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그 수준을 넘는 연산에 대해서는 반 이상



< 학생들이 접속해 확인한 통계청 사이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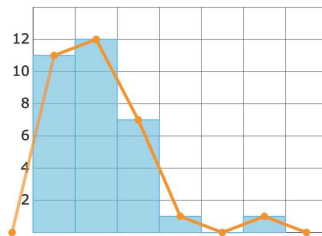
의 학생이 굉장히 미숙하다. 이러한 연산에 대한 어려움을 엑셀이 어느 정도 해소해줄 수 있음을 발견한 북한이탈청소년들은 굉장히 기뻐하며 엑셀을 활용해보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소프트웨어의 편리함에 대해서는 덕분에 굉장히 쉽게 이해했다.

	A	B	C	D	E	F	G	H
1								
2								
3								
4			연구수	교습학생 수	비율	백분율		
5			363,443	289	0.000795173	0.080%		
6			435,781	274	0.000629254	0.064%		
7			45,807	281	0.000613621	0.079%		
8			154,753	75	0.000484643	0.048%		
9			62,448	32	0.000512426	0.051%		
10			38,277	85	0.00081396	0.086%		
11			203,913	145	0.000715931	0.071%		
12			1,039,884	1,329	0.000127823	0.128%		
13			363,443	289	0.000795173	0.080%		
14			162,754	479	0.000294387	0.029%		
15			438,457	413	0.00094194	0.094%		
16			851,381	740	0.000869176	0.087%		
17			339,884	349	0.001031303	0.103%		
18			402,388	320	0.000794265	0.079%		
19			63,778	83	0.001301389	0.130%		
20			193,163	188	0.000973418	0.098%		
21			211,101	107	0.000506866	0.051%		
22			891,126	961	0.000966204	0.097%		
23			327,723	281	0.000794648	0.080%		
24			874,580	331	0.000380155	0.038%		
25			111,367	57	0.000511821	0.051%		
26			210,359	184	0.000874693	0.087%		
27			111,563	81	0.000724776	0.073%		
28			182,896	147	0.000803235	0.080%		
29			470,832	346	0.000734869	0.073%		
30			228,656	148	0.000709203	0.071%		
31			640,890	565	0.000881587	0.088%		
32			1,184,641	1,196	0.001001641	0.100%		
33			689,659	607	0.000881698	0.088%		
34			284,890	327	0.001147811	0.115%		
35			156,763	120	0.000765487	0.077%		
36			597,414	602	0.001042435	0.104%		
37								
38								
39								
40								

<통계청 자료를 엑셀로 정리하기>

3) 이지통계를 이용한 자료의 정리 수업 결과

- 프로그램이 다루기 매우 쉽게 설정되어 있어 엑셀에 정리한 자료의 변형을 매우 쉽게 수행하였다.
- 유독 줄기와 잎 그림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단, 도수분포표에서의 이상, 미만의 개념에 대해 혼란이 있었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은 이상, 미만이라는 용어조차 익숙하게 느끼지 않으므로 사소한 용어도 설명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 본 수업은 이지통계를 이용해 자료를 정리하면서 자료의 정리 방법을 이해하는 것에도 목적을 두고 있지만 다양한 예를 관찰하며 그 특징을 추론하는 귀납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시적인 목적을 두고 있기도 했다. 이에 학생들의 다양한 자료를 관찰하면서 줄기와 잎 그림,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도수분포다각형에 대한 특징을 추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장단점을 말하게 했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은 주로 강의식 수업을 통해 지식을 전달받고 문제를 여러 개 푸는 훈련을 통해 학습한 경험이 많다. 따라서 다양한 예를 관찰하고 직접 개념을 추출해내며, 이를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낯선 경험이다. 본 수업을 통해 그 낯선 경험이 익숙해지도록 유도했다. 생각보다 빠르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며 각 자료의 정리 방법을 추론해냈다.



<이지통계로 자료 정리하기>

4) 자료의 정리 수업 결과

	A	B	C	D	E
1					
2					
3					
4					
5					
6					
7					
8					
9					
10					
11					

<엑셀에서 상대도수 구하기>

경기도 시군구별 의류업 사업체 수			
계급	사업체 수(개)	계급값	계급값*도수
0 이상 270 미만	7	135	945
270 이상 540 미만	7	405	2835
540 이상 810 미만	5	675	3375
810 이상 1080 미만	5	945	4725
1080 이상 1350 미만	2	1215	2430
1350 이상 1620 미만	0	1485	0
1620 이상 1890 미만	2	1755	3510
1890 이상 2160 미만	1	2025	2025
2160 이상 2430 미만	0	2295	0
2430 이상 2700 미만	1	2565	2565
2700 이상 2970 미만	2	2835	5670
2970 이상 3240 미만	0	3105	0
총	32		28080

<엑셀을 활용한 도수분포표의 평균>

평균 877.5

- 비율에서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를 혼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북한에서 수식으로 나눗셈을 해본 적은 있으나 언어로 설명하면서 연산을 해본 적이 많지 않고 했다. 이에 무엇을 무엇으로 나누는 지를 이해하는 데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분수 또한 기준이 되는 수가 분모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북한에서의 수업이 초등학교 내용부터 강의식 수업으로 이루어져있어 분수에 대한 언어적인 이해가 부족하고 그나마 북한에서 학습을 했던 학생들은 분수에 대한 연산 방법만을 이해하고 있는 듯 했다.
- 비율 개념과 상대도수 개념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비율을 학습한 이후에 상대도수를 매우 잘 이해하는 편이었다. 또한, 복잡한 계산은 컴퓨터를 이용해 자동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 다만, 컴퓨터 조작 자체를 두려워하는 나이가 많은 학생이 있었다.
- 엑셀로 도수분포표의 평균을 구할 때, 계급값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굉장히 빠르게 공감했다. 다만, 계급값을 구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북한이탈청소년들이 있었다. 계급의 크기에 따라 평균이 다르게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도 같은 자료를 평균이 다르게 나왔다고 해서 다른 자료로 착각하는 실수를 반복했다.

5) 설문조사 실습 수업 결과

- 설문조사를 조작하는 다양한 기업의 예를 들며 올바른 설문조사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수업은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생각을 잘 발견할 수 있는 수업이었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은 윤리에 대한 기준이 한국의 일반적인 윤리에 대한 기준과 다소 다른 듯하다. 일부러 만족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매겨달라고 요청하며 높은 점수를 매긴 고객에게 비싼 사은품을 증정하는 기업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만족도를 조작한 것은 맞으나 고객들도 사은품을 얻으며 이득을 얻고 기업 입장에서는 사은품 값을 투자하여 좋은 만족도를 얻는 것이니 나쁠 것이 없다는 이야기였다. 주로 윤리적인 관점보다는 이해관계를 통해 상황을 이해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설문조사 경험을 나누면서 학생들이 많은 의문을 품고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고민할 수 있도록 했다. 점차 정직하게 설문조사를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학생들 스스로 이야기했다.

- 수학에 대한 두려움과 반감이 있던 북한이탈청소년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수업이기도 했다. 수학에 어려움을 겪던 학생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른 교과에서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고 대부분 기술을 사용하는 직업을 탐색하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오히려 수학을 싫어하던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나 사업 구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를 들면, 미용 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네일아트에 대한 관심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 다른 미용에 관심을 둔 학생은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기초화장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았다. 또 다른 학생은 교과에는 관심이 없으나 여행을 좋아하는 데 여행에 대한 선호를 조사하였다. 일부 학생들은 카페 창업을 고민하며 카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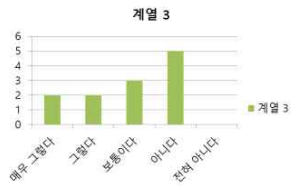
6) 설문조사 결과정리 수업 결과

- 컴퓨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몰라보게 줄어들었다.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에서 두려움 없이 차트 만들기를 하고 수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가 자동으로 만든 차트를 맹신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컴퓨터는 정확한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학생들이 수정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다. 예를 들면 축을 설정하거나 단위를 입력하는 것 등이다. 그런데 학생들은 자세하게 그래프를 이해하지 못해 잘못된 형식의 차트를 사용하거나, 축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꽤 많았다. 통계자료를 면밀히 이해하는 능력이 조금 더 갖춰져야 했다.

- 설문조사의 목적, 설문조사의 내용, 설문조사의 결과, 결론의 흐름으로 잘 구성된 발표자료가 많지 않아 아쉬웠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의 특성상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논리적인 흐름으로 구성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국어교과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7) 설문조사 결과발표 수업 결과

질문 3. 학교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이 공부에 도움이 된다.



체육대회에서 어떤 운동을 하고 싶나



[그림 5] 발표수업 학생 예시
_엄** 학생의 발표 자료

_송** 학생의 발표 자료

- 어떤 학생은 학교에서 핸드폰을 걷는 것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고,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결과를 확인하며 놀라움을 느꼈다고 했다. 설문조사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북한이탈청소년에게 굉장히 의미 있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떠한 조사 결과로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주장하기 위해 체육대회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학생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북한이탈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방식은 ‘우기는’ 방식이다. 다소 우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북한이탈청소년들은 근거 없이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고집을 부릴 때가 많다. 그런데 어떠한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성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경험은 위의 사례 못지않게 의미 있었다.

학생의 발표

영역	평가항목	내용	비고
발표지 및 발표자료	1. 발표지 청탁하고 내용을 이해할만한가?	√	
	2. 발표지의 크기가 적당한가?	√	
	3. 발표자료의 레이아웃이 시원한 것인가?	√	
	4. 적절한 폰트(색이나 세로줄)를 사용했는가?	√	
발표자료	5. PPT가 발표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가?	√	
	6. PPT에 어울리는 사진은 적절했는가?	√	
	7. 발표 자료의 구성이 적절했는가?	√	
발표내용	8. 발표주제와 목적과 결론이 잘 드러나는가?	√	
	9. 발표주제와 관련된 조사가 적절했는가?	√	
	10. 발표주제와 관련된 조사가 적절했는가?	√	
발표내용	1. 발표지를 읽는 방식이 명확한가?	√	
	2. 간사화(집계 또는 조사 결과)가 충분한가?	√	
	3. 간사화(집계 또는 조사 결과)가 적절했는가?	√	
	4. 발표자가 발표 종료후 발표했는가?	√	

* 발표를 하면서 친구의 반응을 살피지 않았을 경우는 비평가의 비평을 받은 경우입니다. * 발표를 하며 불친절한 행태(나 눈치 보지 않고 읽었다) 또는 발표 자료를 읽어주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 발표를 하며 불친절한 행태(나 눈치 보지 않고 읽었다) 또는 발표 자료를 읽어주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 발표를 하며 불친절한 행태(나 눈치 보지 않고 읽었다) 또는 발표 자료를 읽어주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동료의 발표에 대한 피드백>

- 각 학생이 서로 다른 주제의 설문조사를 한 것이 굉장히 흥미로웠다.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탈청소년들은 경청하는 연습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었다. 북한이탈청소년들에 관해 국어과 교사와 대화해본 결과,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것 중 듣는 것에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다른 학생의 조사 내용을 듣고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를 돕기 위해 동료의 발표를 들으면서 기록하고 피드백을 할 수 있는 평가지를 제작해 배부했다. 이 평가지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북한에서 ‘생활총화’를 경험한다. 이 생활총화는 건강한 발전을 위한 비판이기보다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학생들은 그러한 방식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처음에 발표에 대해 피드백을 하자고 했을 때 서로를 굉장히 비난했다. 이 부분에 대해 시도하면서 동료의 발전을 위한 건전한 피드백을 연습할 수 있도록 수차례 설명하자, 점차 피드백을 하는 태도가 개선되었다.

- 동료에게 피드백을 주려는 노력을 하자 경청하려는 태도도 동시에 개선되었다. 경청을 하면서 학생들은 발표에 논리적인 구성이 없으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발견했다. 동료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목적이 뭐였죠?” 라는 질문을 하거나 “그 통계조사를 통해 얻어낸 결론이 뭐죠?” 라는 질문을 했다. 또는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설정했나요?” 라는 질문도 했다. 교사가 반복해서 설명할 때보다 직접 들으면서 논리적 구성에 대한 중요성을 발견했다.

학생의 발표

1. 발표지 및 발표자료

- * 발표지 청탁하고 내용을 이해할만한가?
- * 발표지의 크기가 적당한가?
- * 발표자료의 레이아웃이 시원한 것인가?
- * 적절한 폰트(색이나 세로줄)를 사용했는가?

2. 발표자료

- * PPT가 발표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가?
- * PPT에 어울리는 사진은 적절했는가?
- * 발표 자료의 구성이 적절했는가?

3. 발표내용

- * 발표주제와 목적과 결론이 잘 드러나는가?
- * 간사화(집계 또는 조사 결과)가 충분한가?
- * 간사화(집계 또는 조사 결과)가 적절했는가?

4. 발표내용

- * 발표지를 읽는 방식이 명확한가?
- * 간사화(집계 또는 조사 결과)가 충분한가?
- * 간사화(집계 또는 조사 결과)가 적절했는가?
- * 발표자가 발표 종료후 발표했는가?

<동료의 피드백을 정리>

8) 엑셀을 이용한 대푯값 수업 결과

-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대체로 정리된 결과를 관찰하는 경우가 많고 스스로 결과를 분석해본 경험은 없었다. 일반적으로 정리된 자료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습관이 되어있는 것이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하며 많은 고민을 하게 했다. 평균이 같은 자료더라도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학생들은 어렵지 않게 평균의 한계를 이해하고 대안을 생각해냈다.

- 2017년 8월의 강수량의 대푯값을 정하는 활동은 굉장히 어려웠다. 교사는 일부터 8월의 강수량을 데이터로 제공했다. 유독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고 강수량의 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다. 8월 강수량의 데이터를 정리하고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구해봤는데 중앙값과 최빈값은 모두 0이었다. 이 때, 대푯값을 정해보자며 토론을 시작했는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대푯값으로 '최빈값'을 선택했다.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달의 강수량 대푯값을 0으로 선택하겠다는 학생들의 고집을 꺾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물론, 학생들의 생각을 존중해주되 평균을 고려해보도록 유도하려고 애썼으나 최빈값을 오랫동안 고집했다. 여전히 자료를 정리하는 것의 의의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다.

- 엑셀을 사용해 대푯값을 구하는 활동은 굉장히 편리했다. 학생들이 엑셀 사용에 대한 흥미를 이미 느끼고 있어 수업이 더욱 원활했다.

9) 대푯값의 한계를 산포도로 이해하기 수업 결과

- 대푯값이 같은 자료를 살펴보면 대푯값의 한계에 대해 스스로 느낄 수 있게 했다. 전차시에서 대푯값을 선택할 때 어려움을 겪어 굉장히 우려했으나 기대보다 빠르게 대푯값의 한계를 서술했다.

- 편차를 이해시키면서 산포도를 구하는 방법을 자유롭게 생각해보게 했다. 수업에 줄곧 바른 태도로 임하던 한 북한이탈청소년이 '절댓값'의 평균을 이용해보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물론 분산이나 표준편차는 절댓값의 평균을 이용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굉장히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절댓값의 평균을 이용해보자고 했으며, 이는 수학적으로도 분명 의미 있는 방법이었다. 다른 학생들과 이 방법을 이해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다. 단순히 분산이나 표준편차를 가르치는 데에 본 수업의 목표를 두지 않았다. 스스로 논리적인 근거에 의해 사고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그렇기에 학생의 의견은 매우 의미 있었다.

- 표준편차는 한국에서 굉장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산포도이다. 한국 학생들은 수능 결과를 표준점수로 받아보기도 한다. 이러한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북한이탈청소년들은 관심을 보였다. 유독 한국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문화나 개념이라고 하면 눈을 밝히고 경청한다.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 북한 학생들의 특징이다. 표준편차를 어려워했지만 굉장히 집중했고 엑셀을 이용해 구할 때 즐거움을 느꼈다.

10) 게임하며 익히는 확률 수업 결과

- 2학기가 되자 활동을 하며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많이 익숙해졌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이지만 북한이탈청소년들은 활동을 하며 지식을 습득한 경험이 없어 처음에는 마치 공부

를 안한 것 같다는 반응이 많았다. 물렛을 돌리고 추첨상자에서 공을 뽑으며 확률을 이해하는데 수학을 싫어하는 학생들도 밝은 얼굴로 참여했다. 그 학생들은 생각보다 수학이 어렵지 않다고 말하며 함께 확률을 구했다.

- 여사건의 확률을 구할 때는 어려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여사건의 확률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수학이 아니라 언어적인 능력이 수반된다. 그런데 논리적 사고가 잘 되지 않다보니 여사건이 조금만 복잡해져도 언어적으로도, 수학적으로도 이해를 못했다. 많이 반복하고 나서야 여사건의 확률을 구할 수 있었다.

11) 뽑고 줄서기 수업 결과

- 북한이탈청소년들에게서 느끼는 수학 수업의 어려움은 간단한 세기조차 어려워한다는 것이다. 어쩌면 세는 것은 초등학교부터 익숙해져야 하는 수학의 기본이다. 그런데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멋있는 수학을 하고 싶어 하고 세는 것은 멋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세기에는 적절한 전략이 필요하나 전략도 갖추고 있지 않아 멋을 포기하고 세기를 시작하더라도 제대로 세는 경우가 드물다. 본 수업은 단순히 순열과 조합을 가르치고자 계획된 것은 아니다. 세는 전략을 갖춰나가고 순열과 조합은 그에 대한 결과로서 얻을 수 있게 하고자 계획되었다. 굉장히 오래 걸렸지만 결국 순열을 이해할 수 있었다.

- 북한이탈청소년들은 영어 학습에 굉장히 눈을 밝힌다. Permutation이라는 단어나 Combination이라는 단어만 봐도 열심히 학습해야겠다는 동기가 유발된다. 함께 순열과 조합 기호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학습할 수 있었다.

- 팩토리얼 기호에 대한 흥미도 예상보다 높았다. 단지 순열과 조합을 구하는 도구로서 학습하고자 했는데, '한국 애들도 팩토리얼 다 알아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굉장히 수업에 집중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개념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너무 쉬운 개념이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자 수업에 대한 열의가 높아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이 한국 학생들과 다르지 않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굉장히 높음을 보여주는 부분이었다.

- 순열과 조합을 수식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낄 줄 알았는데 이제는 수업에서 두려움이라는 것이 거의 사라졌다. 덕분에 개념을 이해하는 데도 걱정없이 도전하는 태도로 참여해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12) 윷놀이 한마당 수업 결과

- 윷놀이를 하면서 학생들이 굉장한 흥미를 느꼈다. 북한의 윷놀이와 한국의 윷놀이를 설명하면서 행복해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덕분에 독립시행이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었다. 교사는 시행의 횟수를 늘리기 위해 윷가락을 반복해 던지도록 했는데 처음에는 학생들이 힘들다고 5분도 되지 않아 불평을 했다. 그런데 불평을 하면서 던지고 기록하는 것에 오히려 즐거움을 느끼기도 했다. 그리고 그러한 감정의 변화 속에서 독립시행의 의미를 더욱 잘 이해했다.

-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하는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일단 사건에 대한 확률을 구해야 하고,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한 후에 확률을 다시 구한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문제해결의 단계가 2단계를 넘어가면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처음

에는 교사가 지시한 것은 하지만 문제해결의 방법을 이해하지 않고 포기하려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였다.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자 자신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기 시작했다. 덕분에 독립시행의 확률에 대해 완전히 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열심히 참여하고 계산에 임했다.

- 본 수업을 통해 독립시행과 독립시행의 확률을 지식으로 습득한 것에 대한 결과를 평가한다면 거의 효과가 없었다고 판단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본 수업이 의미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이 단계적인 문제해결을 경험했다는 사실이다. 수학 학습에서 문제해결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청소년들은 여러 단계의 문제 해결에 흥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 문제해결은 태도와 반성이 중요한 만큼 훈련할 가치가 있다.

13) 비판적 사고 수업 결과

- 본 수업을 마무리하며 비판적 사고 수업을 한 것은 유의미했다. 자료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부터 비판적인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활동까지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했지만 경험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많은 학생들이 ‘표본 설정’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조사를 실시한 대상이 몇 명이었는지, 그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한 결과가 신뢰할만한 것인지, 조사에 의도가 있지는 않았는지를 면밀히 관찰하는 것을 통해 본 수업이 꽤나 유의미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 한 학생이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된 내용을 발표한 것이 매우 인상 깊었다. 북한이탈청소년들 중 다수는 기초생활수급자다. 자신과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고 이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사에서는 수급자의 자녀가 다시 수급자가 될 확률이 높고 그 이유가 교육의 차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학생의 의견은 다소 달랐다. 수급자의 삶을 경험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사는 것이 생각보다 편하고 나쁘지 않다고 느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삶을 다시 선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어떤 학생은 한국이 복지가 잘 이루어져 오히려 공산국가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한 적이 있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된 발표를 한 학생도 비슷한 맥락에서 한국은 복지가 잘 되어있어 원한다면 교육의 질은 높일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로의 삶을 선택한 결과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기사의 숫자를 분석하면서 비록 비율로는 수급자의 자녀가 수급자일지를 밝혀 숫자로도 비교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확률과 통계 논술평가
~~분양금 때 1000 정도 수급금 받기 쉽지 않겠다 이 표 기준~~
~~비율로 비교할수록 지역적 불균형이 보이는 편이 맞다~~
 1,000 배수 100배의 수급자이고 200 24.0% 이면
 수급자 자녀를 24%만 혹은 100배일 줄 8.6%가
 비수급 가족의 자녀가 수급자가 된다면 100배 정도는
 비수급 가족의 자녀가 수급자가 되는 데는 10배 정도는
 이 정도로 분할을 해 비가까이 두배 정도는 가능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개인 차이는 교육의
 방식 못해 수급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런 것만
 알라기 싫어서 수급자가 된다. 그러므로 교육 받지
 못해 수급자가 된다는 결론은 선취한 결론이어서 안맞아
 10 개에서 수급자가 20 개는 수급자를 낳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내일 국가를 위한, 1000 정도는 전체를
 확대할 계획이면 내일은 내 교육기관 내의 생각으로는
 노동과도 관련해서 교육 역시 교육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기사를 읽고
 최**학생이 쓴 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수업을 운영한 교사 평가

[표 20] 운영과제3을 운영한 교사의 평가

<p>태도 평가</p>	<p>- 컴퓨터실에서 진행된 수업임에도 비교적 집중이 잘 되는 수업이었다. 다만, 컴퓨터의 성능이 아주 좋지 않고, 부팅이 되지 않거나 갑작스럽게 인터넷 연결이 끊어지는 컴퓨터가 있어 돌발 상황을 제어하는 데에 약간의 주의가 분산된 것이 아쉬웠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컴퓨터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동영상을 보거나 SNS를 하는 행동 등은 드물었다.</p> <p>-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새로운 기능을 습득하는 것에 대해 즉각적인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또한, 다른 친구를 도와주고 함께 하는 모습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p> <p>- 과제를 스스로하기 어려웠다. 기본적으로 과제카드를 읽는 것이 귀찮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태도를 이끌어내는 것이 본 수업의 궁극적인 목표이나 학생들이 의존하려는 태도를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다.</p> <p>- 직접적으로 교과서 내용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다보니 숙제를 하거나 복습을 하는 태도가 부족하다. 더욱 명확한 과제 제시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비율'을 학습하기 위한 학습지를 제공하는 등의 과제를 제시하면 좋을 것이다.</p> <p>- 본 수업에서 가장 두드러진 태도는 '학생들의 윤리 의식'이었다. 설문조사의 태도에서 학생들의 가치와 기준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설문조사의 필요성에 공감하기 어려웠다. 굳이 정확한 자료에 근거하여 말해야하는 지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웠다. 현대 사회는 '팩트 체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근거를 중요시하는 사회이다. 그러나 북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근거에 의해 주장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에 근거하여 말하는 것을 굉장히 낯설어했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조사를 조작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 기준이 없는 경우가 있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p> <p>- 발표를 듣는 학생들의 태도는 몰라보게 달라졌다. 오리엔테이션 발표 때, 학생들은 발표자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난하거나 조롱할 준비가 되어있는 모습이였다. 이에 교사가 여러 번 올바른 피드백 태도를 가르쳐야만 했다. 그런데 학생들이 발표를 듣는 태도는 사뭇 진지했다. 심지어 발표 후에 질문도 매우 의미 있었다.</p> <p>- 특히 이** 학생의 듣는 태도는 놀라웠다. 이 학생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집중하여 듣는 성향을 갖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발표 때마다 집중을 하고 발표가 끝나면 본 설문조사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왜 발표를 이렇게 구성하였는지 등의 의미 있는 질문을 했다.</p>
<p>지식 평가</p>	<p>- '표본'과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에 대한 이해</p> <p>'표본'의 중요성을 학생들이 다양한 연구 결과를 보고 자연스럽게 이끌어냈다. 이에 교사가 표본에 대해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하였는데 잘 이해하였다. 통계적 확률이 표본 집단이 커지고 시행의 횟수가 늘어나야 의미가 있으며 수학적 확률과 유사해짐을 이해하였다. 비록, 실제로 표본 집단이 커지면서 수학적 확률에 근사하는 것을 학생들이 직접 확인하지 않아 약간의 의문을 가졌으나 교과 내용은 편안하게 이해하였다. 지나친 숫자를 이용한 문제풀이보다는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수업이 더 중요하다</p>

	<p>고 생각된다. 이 생각에 관하여 본 수업에서 개념 이해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엑셀의 SUM, AVERAGE 함수를 굉장히 빠르게 익혔다. 기능 습득이 빠르고 흥미로워한다. 뿐만 아니라, print screen 기능 역시도 곧잘 습득하는 듯 보였다. -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표본과 모집단 등을 굉장히 빠르게 이해했으며, 확률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높았다. 책을 펴고 개념 하나하나를 짚는 것보다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을 빠르게 받아들였다. 또한, 부담이 없는 방식으로 지식을 전달하다보니 흡수가 더 빠르게 이루어졌다. 평균을 구하는 방법 또한 무리 없이 받아들였으며, 비율과 백분율에 대해서도 Excel에서 즉각적인 수치를 보니 매우 빠르게 이해했다. 선수지식을 엄밀하고 계산적인 방법으로 보완하지는 못했으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 자료를 정리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음을 이해하였으며 정리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 반복적으로 '상대수'와 관련한 비율 개념을 학습했기 때문에 비율에 대한 이해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에 대한 이해도 훨씬 나아졌다. - '평균'이라는 개념도 인지했으며, 많은 자료를 다룰 때에는 정확한 변량보다는 대략적인 값을 사용하여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에 대해서도 잘 이해했다. '도수분포표'라는 자료 표현 방식의 정확한 명칭에 대해서는 잘 외우지 못한다. 그러나 본 수업의 목적은 명칭보다는 표현 자체에 있으므로 크게 무게를 두지 않는다. - 자료는 결국 '해석'과 '설명'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표에서 한 열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지를 정확하게 말하지 못한다. 결국 자료를 작성할 수는 있으나 말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하지 못한다. 이에 대한 꾸준한 발표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 부분은 '세기'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비율이나 그래프 등은 학습을 통해 부담을 덜어낸 모습이었다. 그러나 세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부담을 느끼는 것을 발견했다. 일단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 학생들에게 그러한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만 '세기'로 시작되는 깊은 수학의 영역에 다가갈 수 있음을 설명했으나 여전히 '세기'는 익숙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연습해야 할 부분이라고 느낀다. - 통계자료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엑셀에 자료의 값을 입력하여 차트를 생성하는 학생들의 활동을 관찰했을 때, 표를 작성할 수 있으며 비율을 산출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 통계 자료를 정리할 때 표본이나 그래프의 종류를 어떻게 설정할 지를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p>일반화 가치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바른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학생들이 많지 않아 본 수업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토론과 사고 수업에서 학생들은 적극적이며 의미 있는 답변을 많이 했다. - 북한이나 중국의 경우 일반 국민에게 우리나라와 같이 자료를 완전하게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이처럼 광범위한 자료를 제공받은 경험이 없다. 공산국가의 학생들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광범위한 정보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놀라게 느껴졌던 것 같다. 제공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활용하거나 자료를 찾는 연습 자체가 매우 낯설었고 그런 면에서 수업이 의미 있었다. 자료가 제공된다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정보를 이용하는 주체로서 본 수업이 도움이 되었으리라 예상한다. - 물론 한국 일반 청소년들도 엑셀의 기능을 잘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엑셀을 전혀 사

	<p>용해본 적 없는 북한 학생들이 복잡한 계산을 자동화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의의가 있었다. 특히, 북한 학생들은 계산 실력이 다소 떨어지고 계산의 속도가 느리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된 학생들에게 연산 방법을 알려주고 연산의 정확도를 수차례 연습 시키는 것보다 컴퓨터가 계산을 하도록 수식을 명령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바 본 수업이 유의미했다고 생각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론 학생들의 전반적인 기능이 향상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려가 되는 것은 본 수업의 목표는 '수학적 사고'를 하게 하는 것을 주로 한다. 그런데 기능 습득에 시간이 걸리고 개념을 받아들이는 데에 시간이 걸리다보니 충분한 토의를 하는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교사가 어쩔 수 없이 가이드를 많이 주게 되는데 이는 교과목 목표 달성에 약간의 장애가 된다. - 컴퓨터 활용 능력의 향상은 분명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USB에 자료를 저장하는 일이나 파일 명을 바꾸는 것 등 초차 북한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런 수업을 통해 부수적인 기본 기능을 많이 습득하는 것 같다. 기능적인 면에서 본 수업은 북한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 - 수업을 통해 북한 청소년들의 공통점이 드러났다. 윤리적 기준이 모호한 것과 근거를 들어 주장하기 어려워하는 것과 '세기'라는 초보적인 수학적 기능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본 수업의 짧은 과정을 통하여 그 공통적인 어려움이 극복될 수 있을 지에 대한 걱정이 있다. - '세기'를 연습하면서 이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 있게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 무엇보다도 발표 수업은 북한 학생들에게 매우 필요하다고 느꼈다.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 함께 더 나은 결과를 창출하기 위한 피드백을 해보는 경험은 매우 의미 있었다. 처음으로 학생들의 진지한 피드백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생활총화에 익숙하던 학생들이 진정한 비판적 사고가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된다.
--	------------------------------------------------------------------------------------------------------------------------------------------------------------------------------------------------------------------------------------------------------------------------------------------------------------------------------------------------------------------------------------------------------------------------------------------------------------------------------------------------------------------------------------------------------------------------------------------------------------------------------------------------------------------------------------------------------------------------------------------------------------------------------------------------------------------------------------------------------------------------------------------------------------------------------------------------------------------------------------------------------------------------------------------------------------------------------------------------------------------------------------------------------------------------

바. 활동사진



설문조사 결과 정리



설문조사 실시



이** 나만의 통계조사 계획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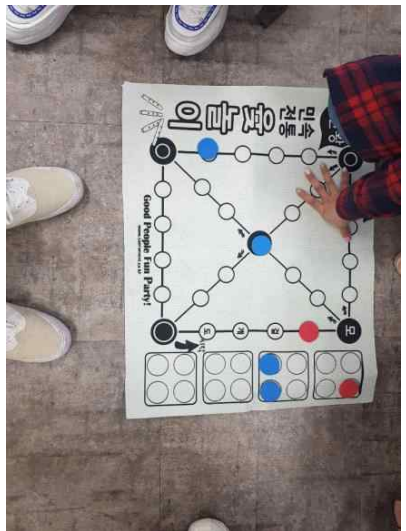
김** 나만의 통계조사 계획하기



최** 설문조사 결과 발표



심** 설문조사 결과 발표



옷놀이 독립시행



옷놀이 한마당

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의 목적은 수백 명의 북한이탈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5년 이상 맞춤형 교육을 실시 해온 하늘꿈학교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들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이탈청소년 맞춤형 인성교육, 세계사교육, 수학교육, 글쓰기교육의 모델을 설계하고 현장 검증의 과정을 거친 후 일반화된 교재를 제작하여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교육의 기초자료 연구물로서 기여하고자 했다. 남북 ‘통합’ 교육을 위한 노력은 남북한 학생들이 섞여 있는 정규학교를 통한 연구가 필요한 반면, 남한과 격차가 현저히 심한 북한 출신 청소년들의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탈북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심도 있는 연구와 대안을 마련해야하기 때문이다. 탈북청소년들만을 모아 학교를 운영하며 각종 시행착오를 통해 노하우를 구축한 본교의 특수한 환경과 축적된 경험이 이러한 연구를 가능하게 하였다.

- 1) 운영과제로 선정된 과목은 인성, 글쓰기교육처럼 북한이탈청소년들이 북한에서 배워본 경험이 없거나 세계사, 수학교육처럼 한국의 보통교과 내에서의 동일 교과서, 교수법으로는 교육이 부적절해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과목들이었다. 상기 과목들을 이번 연구학교를 통해 심도 있게 교육하여 학생들의 효능감을 높이고 정서적, 지적 변화를 도모하였다.
- 2) 개발된 수업에 대한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참여도와 만족도가 매우 높았고 해당 과목에 대한 역량도 강화되어 일반화 수업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었다.
- 3) 기획 당시 설정한 목표대로 2년간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적용을 통해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교재로 인성교육 교사용지도서, 글쓰기 학생용워크북, 세계사 교사용지도서/학생용 워크북, 수학 교사용지도서/학생용워크북, 이렇게 총 6권의 교재가 제작되었다. 이렇게 개발된 교재는 당장 일반화되어 보급되기에는 학급 구성의 형태, 북한이탈청소년들에 대한 경험이 없는 교사들에 대한 교육 필요 등 고려해야 할 측면에 있어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들의 특성, 발달단계, 문화적 배경 등을 감안한 실질적인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가 거의 부재한 현 시점에서 위의 자료는 북한이탈청소년을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유용한 가이드가 되고 학생들의 역량을 높이는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1-1. 운영과제 ① :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인성교육 모델 개발을 통해



- 가. 북한이탈청소년에게 부족한 성품을 선정하여 주제별 성품 중심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다.
- 나. 북한이탈청소년의 성장 배경과 눈높이에 맞춘 교안 개발을 개발하였다.
- 다.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 다양한 활동을 수반하는 수업 방식을 시도할 수 있었다.
- 라. 남한 출신의 교사들이 북한식 사고체계를 이해하고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를 반영 및 일반화한 교사용 지도서 인성교육 교재를 최종 제작하고 탈북 대학생들의 감수를 거쳤다.

본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온 지난 인성교육을 평가해보면,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참여와 반응을 보여주기도 하고 입시와 상관없는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중·고등학교의 의무적인 교육활동 때 다루지 않으면 그 어떤 곳에서도 북한이탈청소년들이 고민해보지 못했을 인성 관련 영역들이 분명히 크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와 의지를 이끌어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이에 대한 상담을 해보면 알면서도 잘못된 경우도 있지만, 약속 지키기, 책임을 지기,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등의 가치들에 대해 고민해보거나 가정 안에서 배워본 경험이 없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행동하는 사례들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배워야했던 기본적인 가치들을 배우지 못하고 넘어온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인성 측면의 결핍은 매우 심각하다. 이는 동시에 **인성교육의 시급성**을 말해주고 있기도 하다. 한국 사람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이 북한이탈청소년들에게는 너무나 생소하고 낯선 것일 수 있다. 이들이 대학교에 들어가 성인으로서 살아가기 전 마지막 기회인 청소년기에 사랑의 언어와 따뜻한 이해로 인성교육을 해줄 손길이 매우 필요하다. 인성교육의 당위성은 충분하지만 이것이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생각과 감정에 닿고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수업을 설계**하는 숙제는 연구자의 몫이다. 이번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이에 대해 더욱 연구하고 보완하는 기회가 되었다.

1-2. 운영과제 ② :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세계사교육 모델 개발을 통해



- 가.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중에서 북한이탈청소년에게 유의미하고 지적 수준에 적합한 지도 단원과 지도 요소를 추출하여 2년간의 연구 수업에 적용할 수 있었다.
- 나. 수업 시 학생들의 반응과 활동, 주제 설문 등을 분석하여 1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학생용 워크북을 최종 제작하였다.
- 다.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각 주제별 학습 목표와 수업의 주안점, 지도상의 유의점 등을 담은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하였다.

2년 간 북한이탈청소년과 세계사 수업을 하며 느낀 어려운 점 중 하나는 세계사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보다 **처음 접한 세계사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없애는 것**이었다. 세계사에 대한 거부감은 북한에서 세계사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직접적인 이유도 있지만 고립된 사회에서 형성된 세계에 대한 무지 혹은 좁은 인식이 강해 그 인식이 확장되어야 할 필요성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다. 탈북 후 남한 생활이 오래 되어도 이탈리아의 위치는 알 필요도 없고 여전히 자신이 갈 수 없는 미지의 나라라고 여기는 것을 볼 때 그들이 가진 제한된 틀의 강력함을 실감하였다. 주제 학습도 중요하지만 **타 지역에 대한 관심, 공간 인식 확장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세계지도와 나라의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영상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였다. 다행히 수업 초기에 나라명도 헛갈리던 학생들은 점차 나라 구분을 하고 본인이 더 알고 싶은 나라에 여행가고 싶다는 바람도 나타냈다.

또 다른 어려운 점은 왜곡된 지식·인식을 바로 잡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주제 분석에서 언급한 것처럼 히틀러에 대한 근거 없는 긍정적인 평가, (냉전 체제에서 다룬) 6·25 전쟁은 남침이 아니라는 주장, 1945년 8월의 독립은 일본의 무조건 항복 때문이 아닌 김일성이 이루었다는 지식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교사가 오류를 바로 잡고 세계사의 보편적인 지식을 전달한다는 점을 강조해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 처음 세계사 교육을 받기 시작한 학생들에게 한 번의 강압적인 주입으로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도 무리가 있다. 이번 세계사 프로그램은 바른 개념 정립을 위한 첫 발걸음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으며 이 문제를 통해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세계사 교육이 더없이 중요하다고 확신하였다.

1-3. 운영과제 ③ :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수학교육 모델 개발을 통해



- 가. 북한이탈청소년들의 무조건적인 지식 수용의 태도가 비판적 사고의 태도로 전환될 수 있었다.
- 나. 논리를 갖추어 말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고 타인의 의견에 경청하는 태도가 형성되었다.
- 다. 수학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만들 수 있었다.
- 라. 수업 시 학생들의 반응을 분석하여 그동안 일반화하지 못했던 북한이탈청소년들의 특성을 반영한 일반화한 교재를 최종 제작할 수 있었다.

운영과제를 계획할 당시에는 확률과 통계 내용영역을 도구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모델 개발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북한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통계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탈청소년들은 확률과 통계 수업을 경험한 적이 없어 수업 그 자체에 대한 의미를 느꼈다.** 특히, 북한이탈청소년들이 한국에 오면 수학 지식의 결손이 커 대수 학습이나 연산학습에 집중해 한국에 와서도 확률과 통계를 학습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북한이탈청소년들이 확률과 통계 영역을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매우 의미 있었다.

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실생활이나 문제 해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연산 및 대수능력, 중등 정규교과 통계 교육의 내용을 중심으로 수학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또한 수학적 교양을 쌓아 의사소통 및 표현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태도도 질적으로 달라졌다. **비판적인 수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 실생활에서 수학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도구적인 측면으로써의 수학 능력을 갖추고 타인과 협력하며 서로 존중하는 학습을 배우며** 인성이 갖춰진 학습 태도를 기를 수 있었다.

2 제 언

지난 2년간 학교 현장에서 이뤄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와 북한이탈청소년 교육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 **한국식 교육의 일방적 강요가 아닌, 북한이탈청소년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의 개발이 필요하다.**

교육부 탈북학생 통계 현황(2015.4 기준)에 의하면 탈북학생이 재학하는 정규학교의 91.1%는 탈북학생이 5명 미만이다. 이들은 남한청소년들이 주를 이루는 학교에서 소수계층을 형성하며 일방적인 한국식 교육으로의 흡수를 강요받고 있다. 그곳에서 공부를 잘하고 잘 적응하면 성공적인 사람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실패한 사람으로 규정된다. 이는 민감한 청소년기에 그들의 정체성과 자존감에 큰 손상을 줄 뿐 아니라, 탈북학생은 부적응 집단으로 낙인 찍혀 교사들의 기피 대상이 되곤 한다. 하지만 북한이탈청소년이 한국의 교육 체계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남한청소년들과는 ‘다른 생애’를 살아왔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컴퓨터 수업을 받아보지 못한 학생에게 코딩 교육을 시도하고 아직 영어의 단어를 공부해야 할 단계에 있는 학생에게 수능 수준의 영어 독해 능력을 기대하는 것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좌절을 주는 결과를 낳는다. 북한이탈청소년의 출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교육 목표를 설정하여 적합한 교수법, 교재, 평가 방법을 통해 교육해야 한다. 중고등교육과정이라는 제한된 시간을 이들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수업을 설계할 때 본 연구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의 상당한 만족도와 참여도, 실력의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피교육자인 북한이탈청소년들의 경험, 문화적 배경, 발달단계, 사고체계 등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첫 걸음은 학습 수요자에 대한 이해와 파악이다. 일반적으로 교육 현장에서는 북한이탈청소년의 기초학력수준 향상 방안을 찾기 위한 고민을 하지만, 학습 대상자인 ‘그들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는다. 북한이탈청소년을 교육하는 교사라면 그들의 문화적 배경, 발달단계, 사고체계가 어떠한지 최소한의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사람들과는 다른 경험을 지닌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들에 관한 도서나 논문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 읽어보는 방법 외에도 직접 만나보고 교류하며 배우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경험적 학습은 다수의 교사

들에게 시간적, 물리적으로 제공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므로 북한이탈청소년을 먼저 경험한 교육기관이나 교사들이 알게 된 실천적 지식들을 나누고 공유하는 일, 이를 위한 교사 워크숍 등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 학습능력 향상만이 아닌,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남한청소년에게도 매우 중요하지만, 북한이탈청소년들에게 있어 이들의 경험이나 사고체계에서 충동을 일으키는 감사, 정직, 관용 등의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교육은 학교에서 반드시 실시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가정교육을 통해 배워야 할 사소한 것들조차 가정 내 부모의 부재로 인해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미 굳어진 가치관이 바뀌기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옳고 그름에 대한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교사와 학급 친구들이 함께 나누는 작업은 학생들의 세계관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의 학습능력 향상에만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이들의 가치관, 더 나아가 상처와 혼란 등을 치유하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시간을 이번 연구학교 가운데 본교가 실시했던 인성교육처럼 교과로 선정하여 교육과정 내에 편재해 일시적이거나 이벤트성이 아닌 학기 중, 중고등학교 과정 중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시한다면 진정한 민주시민으로의 양성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세계사교육은 테마별 주제 학습이 보충될 때 더욱 효과적이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서양사에 한정했기 때문에 다루지 못한 다른 나라의 역사뿐 아니라 역사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테마별 주제 학습의 필요성을 발견하였다. 특히, ‘종교’에 대한 주제가 대표적이다. 고대 로마, 서유럽 봉건 사회, 종교 개혁, 제2차 세계 대전의 유대인 학살을 다룰 때 학생들은 유대교-천주교-개신교에 대한 개념이 없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종교라는 주제에 호기심을 보이기도 했다. 종교의 자유가 없는 사회 속에서 온 학생들에게 생소하기만 한 세계 여러 종교에 대한 학습은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할 주제라고 판단된다. 또 다른 주제는 ‘문화사’이다. 북한 세계사 교과서는 한국과 달리 문화사를 따로 다루고 있지 않다. 이 점을 감안하여 1차 연구 때는 문화사를 시대별로 학습하였다. 하지만 문화사를 따로 다루기에 시수가 부족하고 문화 파트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특히 어려워하여 학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2차 연구 때는 문화사를 따로 학습하지 않고 각 주제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획득하고 관련 유적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아쉽게도 1, 2차 모두 각 시대별 문화의 특징을 파악하기엔 역부족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경험을 토대로 문화사를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세계사교육은 ‘한국사’와의 연계 강화 및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면 좋다.

세계사 시간에 한국사를 다루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역사’라는 큰 범주 안에서 북한이탈청소년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고, 꼭 알아야 할 부분이 한국 분단의 역사이다. 그렇다면 한국사 시간에 배우면 되지 않나?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실제 한국사 시간에 현대사까지 자세히 배우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 경우가 아니라도 한국사 시간에 한국 분단 과정을 배운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세계사 흐름 속에서 한국의 역사를 배우니 이해가 잘 되고 더욱 와 닿는다는 학생 피드백이 많았다. 이 점을 반영하여 한국사와 연계되어 있는 세계 근현대사 부분을 늘려 수업교재를 개발하였다.

이번 연구는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지도 단원과 지도 요소를 추출하고 적합성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고 세계사 교재를 개발하였다. 학생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글쓰기 활동을 주로 시행하였다. 연구를 위한 자료의 수집 측면에서 매우 만족스러운 활동이었지만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시행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실제 중간 설문에서 하고 싶은 수업 활동에 대한 물음에 토론이나 발표 수업 등을 하고 싶다는 대답이 많았다. 북한이탈청소년의 학습 수준이 낮기 때문에 토론이나 발표 수업이 효율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교사의 편견도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였다. 북한이탈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수업 교재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글쓰기 이외의 활동을 다양하게 시행하여 학습한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세계사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수업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 북한이탈청소년의 ‘수학적 사고력’을 단기간에 확장시키기 위한 수업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수학적 사고력을 단기간에 끌어올리기 위해 개발된 수업의 모델이다. 장기적으로 이들의 ‘수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제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이 노력이 학습 기간에 걸쳐 오랫동안 이루어질 경우에는 유의미한 발전이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물론, 수학교육에서 수학적 사고 향상 외에도 ‘기초연산 능력’은 여전히 중요하다. 본 연구에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현재 하늘꿈학교 학생들은 기초연산 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해 별도

의 교재로 연산 연습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모델을 실제 수업에 적용할 때 교사들이 기초연산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기초 연산 연습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기를 권한다.

북한이탈청소년들에게 수학을 교육하는 교사들이 수업을 운영하며 주의해야할 점은 이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태도와 어려움을 고려하는 것이다. 첫째, 북한이탈청소년들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서로에게 피드백을 주고받는 경험이 거의 없다. 따라서 자칫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다가 부정적인 피드백에 의해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교사가 교실 내에서 학생의 정서를 잘 파악하고 수업을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이들이 한국 학생들을 궁금해 하고 그들과의 차이를 좁히고 싶은 의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은 한국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나 문화를 자신들이 알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 대학이나 사회에 나가 한국 사람으로부터 북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다르게 보이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교사들이 다양한 문화와 지식을 제공해 그 어려움을 해소시켜주는 동시에 이로 인해 마음이 상해 수업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고급중학교 <력사> 1, 2
 고등중학교 <세계력사> 3, 4학년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2010), 탈북학생 교육지원 정책연구학교 통합 자료집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동아시아사, 세계사
 김영순, 모경환 외(2013), 『사회과 창의, 인성 수업 설계와 실제』, 사회평론
 김원경 외 8인, 『중학교 수학①』, ㈜비상교육, 2009 개정 교육과정
 김원경 외 8인, 『중학교 수학②』, ㈜비상교육, 2009 개정 교육과정
 김원경 외 8인, 『중학교 수학③』, ㈜비상교육, 2009 개정 교육과정
 김원경 외 8인, 『확률과 통계』, ㈜비상교육, 2009 개정 교육과정
 박경미(2014), 『탈북학생의 수학적 태도 및 수학 학습 인식에 대한 조사』, 대한수학교육학회
 변희현(2013), 북한 수학 수업에 관한 연구, 대한수학교육학회
 연보라(2011), 새터민 청소년의 수학학습 실태 및 적응 요인 분석, 한국학교수학회
 윤혜순(2014), 탈북청소년 연구동향과 과제, 청소년학 연구 제21권 11호 (pp.125-149)
 이기돈, 이지현(2016), 『두 탈북 고등학생의 남북한 수학수업 경험에 대한 인터뷰 분석』, 한국학교수학회(The Korean School Mathematics Society)
 이병인 외 7인, 고등학교 세계사 교사용 지도서, 비상교육
 이영숙(2011), 『한국형 12성품교육론』, 좋은나무성품학교
 이영숙(2013), 『인성을 가르치는 학교 만들기』, 좋은나무성품학교
 정소민, 윤현희(2016), 탈북학생 교육 정책연구학교의 운영 실태 분석, 교육문화연구 제22-6호 (pp.513-536)
 최진영 외(2014), 다문화교육 접근법에 따른 다문화교육 정책 및 실행 분석, 초등교육연구 제27-4호 (pp.295-322)
 통일부(2017), 통일백서
 통일교육원 (2018), 북한이해
 한국과 독일, 통일역사교육을 말한다. 느티숲, 김춘식 편저
 한국교육개발원(2015), 탈북청소년 교육백서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http://www.hub4u.or.kr/hub/edu>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http://unibook.unikorea.go.kr>
 통일부 통일교육원. <http://www.uniedu.go.kr>

통일부 요청 경기도교육청 지정학교 | 미래통일사회를 준비하는 통합교육모델 연구

2018학년도 연구학교 운영 최종보고서

발행일 2018년 11월
발행인 임향자
발행처 하늘꿈학교
연구자 강윤희, 함혜원, 송은주 (하늘꿈학교)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518번길 11(복정동) (13113)
전화: (02) 443-2072~4
팩스: (02) 443-2075
홈페이지: www.hdschool.org

■ 위 보고서는 하늘꿈학교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인용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